

www.neargov.org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24
ANNUAL REPORT
2024년 연차보고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24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동북아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지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정회원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 82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이 밖에도 준회원 2개(베트남 호찌민시,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1개(한국 포항시) 총 8개국 90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7억여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광역지방정부 간 국제협력기구입니다.



Contents

메시지 | 5

연합의 주요활동 | 15

- I.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16
- II. 분과위원회 21
 - II-1. 제1회 NEAR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22
 - II-2. 제22회 NEAR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3
 - II-3.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개최 24

사무국의 주요활동 | 27

- I. 2024 회원단체 워크숍 28
- II. 한국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 32
- III.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34
- IV. NEAR 사무국,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36
- V.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40
- VI.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42
- VII. NEAR 사무국, 지역 청소년 대상 국제이해 교육 실시 47

2024 NEAR 활동 현황 및 뉴스 | 49

- I. 주요성과 50
- II. 주요행사 51
- III. 사무국 뉴스 52
- IV. 회원정부 뉴스 72
- V. 행사 초청장 75
- VI. 연하장 및 서한문 76
- VII. 회원단체 지원활동 77

사무국 소개 | 79

부록 | 83

메시지

Message



Message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24년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과 각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경제무역협력과 민간교류가 한층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신 NEAR 사무국과 각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랴오닝성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우위가 뚜렷하고 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다양한 과학 교육자원은 물론,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최대의 공업지역이자 북방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랴오닝성위원회와 성정부는 ‘동북지역 및 랴오닝성 전면진흥’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주요 담화와 지침에 따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대통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 교류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 개방 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제15대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각 회원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6월 랴오닝성에서 개최되는 제15차 NEAR 총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협력과 발전을 위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의장(랴오닝성 성장) **리 러 청**

Message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회원정부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연합은 1996년 창립 이래 2024년도에도 회원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NEAR의 외연이 지속 확대되고,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이제는 동북아 6개국을 중심으로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저버 5개 등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NEAR의 외연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 칭하이성이 82번째 신규회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추이주가 2번째 준회원으로, 한국 포항시가 특별회원으로,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현이 옵서버로 가입하였습니다.

둘째, NEAR의 다자교류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의장정부인 랴오닝성이 주관한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이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에너지협력 분과위, 일본 시마네현의 교육문화교류 분과위, 중국 후난성의 혁신플러스 분과위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분과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주관한 회원단체 워크숍,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청년리더스포럼, 청소년그림 공모전 등 사업도 회원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NEAR의 국제적 위상과 지명도, 영향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회원정부 지사, 부지사 등 고위급과 주한 회원정부 대사, 총영사, 유관 국제기구 책임자 면담이 대폭 확대되고, 동방경제포럼, 동아시아 지사성장회의 등 중요한 국제행사 초청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을 방문하는 회원정부 관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2026년 NEAR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NEAR의 국내외 홍보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였고, 한글 명칭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의장정부인 중국 랴오닝성이 주관하는 NEAR 총회를 비롯하여 중국 산시성(陕西省)의 전통의약 분과위,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체육분과위,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의 청년정책 분과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의 관광분과위, 산둥성의 해양어업분과위 등 5개의 분과위와 사무국의 회원정부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무국은 2025년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원정부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임병진

Message



1996년 경상북도 주도로 창립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동북아시아의 교류를 이끌게 돼 기쁩니다. 28년 전 4개국 29개 지방 정부로 창립된 NEAR가 오늘날 8개국 90개 단체로 성장하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NEAR의 외연 확대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임병진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에도 NEAR는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이 정회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추이주가 준회원으로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원이 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난 28년의 세월 못지않은 큰 활약으로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복잡해지지만, 지방 정부 간의 상생과 협력이 동북아시아 공동의 이익과 번영으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은 국가를 넘어 각 지방 정부들이 함께 연대해야만 풀 수 있는 난제들입니다. 기후 위기, 패권 경쟁, 에너지 위기처럼 당장 드러난 이슈는 물론이고,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도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NEAR를 주축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렵고 막막한 난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AR가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을 이뤄낸 것처럼, 정상들의 만

남이 더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APEC이 추구하는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성·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성과가 나온다면, NEAR 19개 분과위원회의 협력과 논의에도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꽃’에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해야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더 많은 협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NEAR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자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Message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2024년을 알차게 보낸 동북아시아지방정부 연합(NEAR)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한 해 NEAR와 협력하여 국내외 이웃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약속을 맺으며 세계 속에 포항의 새로운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중국 랴오닝성에서의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의 특별회원 가입안은 우리 시에 있어 가까운 미래에 세계로의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존의 국가 중앙정부에서 독점하던 외교의 영역이 지방정부로 조금씩 이양되고 있는 흐름은 세계적으로 확인해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고유의 문제를 비슷한 환경의 이웃 나라의 도시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해소되기 어려웠던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외관계의 결속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8년의 역사를 통해 NEAR는 동북아시아의 각 도시들이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국경을 넘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NEAR는 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청년 포럼과 문화행사를 통하여 상호 간의 친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이처럼 동북아 지역 미래 세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NEAR의 활동에서 우리 포항시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도시 전체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국가 및 수도권 위주의 성장과 발전 속에서 지방 도시의 소외와 이에 수반된 인구감소는 꽤 우려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를 키워간다는 것은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NEAR의 지난 2024년은 NEAR의 유구한 역사에서도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 확신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의 NEAR의 기대 가득한 여정에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장 이강덕

연합의 주요활동

Mai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연합의 주요활동

I.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주요성과

- 역대 고위급 실무위 최대 규모 6개국 38개 회원단체 90여 명 참석
- 중국 칭하이성(82번째) 신규회원, 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준회원(2번째), 한국 포항시 특별회원(1번째) 가입 승인
- 내년 NEAR 총회서 「NEAR 지사·성장 회의」 개최 예정

1. 행사개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6개 회원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의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를 라오닝 성 선양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2022년 온라인 실무위원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고위급실무위원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同 실무위원회에 참가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	참가인원	참가단체명
중국	13개 단체 28명	안후이성, 간쑤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후난성, 지린성, 네이멍구자치구, 산둥성, 칭하이성, 쓰촨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텐진시, 장시성
일본	3개 단체 12명	시마네현, 도야마현, 오키나와
한국	8개 단체 18명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포항시
몽골	8개 단체 14명	불강아이막, 고비쑤베르아이막, 도르노드아이막, 수흐바타라이막, 셸렝가이막, 투브아이막, 옴스아이막, 흠스쿨아이막
러시아	5개 단체 8명	부랴티아공화국,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톰스크주
키르기스스탄	1개 단체 4명	추이주



2. 주요내용

<리러청 라오닝 성장 주최 NEAR 대표단 접견 및 환영만찬>

NEAR 의장인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은 9월 24일 임병진 사무총장과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9월 25일) 회의참가 회원정부대표들을 접견, 간담회에 이어 환영만찬을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중국 측을 제외한 대표단으로 카나트 주마가지예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 등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중국 측 인사로는 前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평서우취안 라오닝성 정부 비서장, 라오닝성 6명 청장급 간부들을 비롯해, NEAR 회원인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성 외판주임 등 8명의 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리러청 라오닝 성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랴오닝성의 발전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임병진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NEAR는 회원단체 증가 등 외연확대는 물론, NEAR의 각종 행사에 참여 단체 및 고위급 참석 증가와 상호 교류 확대 등으로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어 회원정부로부터 신뢰 및 인정감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NEAR는 앞으로도 그간 다져온 회원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며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카나트 주마가지예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 소타유코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차장, 출롱버그 강조릭 몽골 수흐바타르아이막 행정국 고문의 대표 발언을 통해 NEAR를 통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등 결과 있는 공동 발전을 달성하자고 밝혔다.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회의참가 회원정부 90여 명의 참가자 전원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였다.

<개회식>

9월 25일 개회식에서는 NEAR 의장정부인 장리린 라오닝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상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치메드 출롱 몽골 옴스아이막 지사, 카나트 주마가지예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장리린 라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세상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지만 NEAR는 동북아의 수많은 이웃을 연결해 주는 매우 실용적인 교류 플랫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난 28년 동안 NEAR는 개방과 포용, 상호이익, 상호존중, 평등대우를 원칙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하였으며, “① NEAR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② NEAR 회원단



체 간 경제협력 적극 추진, ③ 동북아지역의 원활한 이동 보장, ④ 인문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회의를 통해 NEAR의 회원수는 6개국(중·일·한·북·한·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회원정부로부터 신뢰감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양자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하이밍 대사는 축사에서 “동북아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상호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며, 지방협력은 국가 간 협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하고 “중국 외교부는 내년 라오닝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EAR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

고위급실무위원회 제1세션에서는 NEAR 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분과위, 일본 시마네현 교육문화교류분과위, 일본 도야마현 환경분과위), 향후 진행될 분과위원회(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관광분과위, 중국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 중국 쑤시성 전통의약분과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청년정책분과위) 홍보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몽골 불강아이막,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의 회원단체 발표가 있었다.



<제2세션>

고위급실무위원회 제2세션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의결하였다.
또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NEAR 산하 19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원정부 부단체장 이상이 참가하는「NEAR 지사·성장 회의(가칭)」개최안도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장단체인 라오닝성 웨이광리 외사판공실 2급 순시원의 고위급실무위원회 결과 보고로 행사는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3. 회의결과

2024년 9월 25일 중국 라오닝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키르기스스탄 6개국 38개 회원정부 대표들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사무국 주요업무,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차기 행사보고, 회원정부의 주요관심 사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 관련 현장 개정, 중국 칭하이성의 신규회원 가입,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의 준회원 가입, 한국 경상북도 포항시 NEAR 특별회원가입의 총 4건의 의제가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일본 오키나와현의 옵서버 가입을 알렸다.
이번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의 발전을 위해 사무국에서 안건 2개를 제안하여, 참석 회원정부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1) NEAR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 회의 참여 회원정부는 NEAR 분과위원회가 NEAR의 유용성을 높이는 중요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분과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 사항을 논의하였다.
- ①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회원정부를 사전에 핵심 멤버로 확보하여, 고정 참석을 유도하고, 최소 행사 3개월 전 회원정부에 초청장을 발송.
 - ② 사무국은 사전에 분과위원회 행사계획을 파악하여 회원정부에 알리고 NEAR 행사들이 인접하지 않도록 개최 기간을 적절하게 조율하며, 많은 회원정부, 연구소, 기업인의 참여를 유도.
 - ③ 분과위원회 참석 회원정부는 관심 있는 분과위원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2) NEAR 총회 성공 개최 및 활성화 방안

- 총회는 연합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NEAR 의장정부가 주최하고 회원정부의 단체장이 참석하여 주요 의결사항들을 논의하는 행사로, 많은 단체장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협의하였다.
- ① 의장정부는 총회 개최 전이나 후에 총회에 참석한 회원정부 대표들이 별도로 모이는 단체대표 간 교류 시간을 마련하거나, 단체대표 간의 양자회담을 적극 주선.
 - ② 또한 총회 개최 일자는 바쁜 단체장들의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제시.
 - ③ 회원정부는 내년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

II.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개요

1998년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24년 현재 19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 격년 또는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주요활동 분야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경제인문교류	대한민국 경상북도	1998년	14회	통상촉진, 무역상담, 세미나 등
환경	일본 도야마현	1998년	16회	표착물 조사, 환경심포지엄 등
방재	일본 효고현	1998년	19회	재해 피해예방, 방재능력 향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교육문화교류	일본 시마네현	2002년	22회	인재육성, 문화교류 활성화 등
관광	중국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2008년	2회	관광전시전 및 홍보, 협력포럼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2008년	8회	해양자원 이용 등
광물자원개발	러시아 마가단주	2010년	5회	광물자원 채굴과 가공 등
에너지기후변화	중국 산시성	2010년	2회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체계 등
생명의료산업	대한민국 충청북도	2011년	1회	의료산업 교류 협력 등
농업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1년	2회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체육	러시아 사하공화국	2013년	1회	체육관련 정보 및 교류
물류	중국 헤이룽장성	2017년	-	물류전시행사 및 협력포럼
국제전자상거래	중국 허난성	2017년	1회	국제전자상거래산업포럼, 기업매칭 등
국제인재교류	중국 지린성	2017년	1회	동북아 인재프로젝트 협력포럼, 인재관련 정보와 인력자원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등
혁신플러스	중국 후난성	2018년	1회	과학, 상품, 문화 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 및 교류
청년정책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2018년	-	청년 정책 및 청년지원분야 정보 및 교류
전통의약	중국 산시성	2018년	1회	전통의약부분 정보 및 교류
에너지협력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2023년	1회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추진 및 교류
디지털경제	중국 랴오닝성	2023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장비제조, 신소재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추진

II-1. 제1회 NEAR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1. 행사개요

제1회 NEAR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가 「함께 열어가는 에너지 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202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뒤쓰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회원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을 포함하여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이번 분과위원회는 첫 개최를 알리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개막식, 주제 발표, 기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네이멍구자치구 양진(杨进) 부주석, 임병진 사무총장,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국 위하이위(于海宇) 국장이 축하하였고 네이멍구자치구 외사판공실 팡후이(庞辉) 주임이 본행사 사회를 맡았다. 전체회의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소속 전문가, 대학 교수, 주중 대사관 소속 서기관, 관련 기업인 등이 에너지 발전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네이멍구자치구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공간이자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자원의 보고”라고 소개하며, “민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해진 오늘날, 네이멍구자치구가 지역의 강점인 에너지 분야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를 맡아 에너지 협력에 이바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3. 참고사항

네이멍구자치구는 2016년에 개최된 제11차 NEAR 총회에서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다. 지역 내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 지방정부 간 에너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8월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14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II-2. 제22회 NEAR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 행사개요

「제22회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코디네이터 단체인 일본 시마네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한국 6명, 중국 4명, 브라질 1명 및 일본 10명이 참석하여, 4개국 21명이 참가하였다. 동 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청년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최 및 시마네현 거주 청년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가, 5년 만에 각국 청년을 시마네현으로 초청하여 행해졌다.

2. 주요내용

8월 21일에는 개회식,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크,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은 축사를 통해,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경쟁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이 이웃나라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8월 22일부터는 삼림 보전에 대한 강의, 초목 염색 및 대나무 접시 만들기 체험, 오감을 활용한 삼림 공원 산책, 의견 교환 및 그룹활동, BBQ교류회, 일본 가정 방문, 거리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 후 8월 26일 폐회로 교류활동을 마쳤다.



II-3.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개최

1. 행사개요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가 「생태 문명 및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는 NEAR 22개 회원 정부 대표와 중국 원난성, 쓰촨성, 일본 시가현, 도쿠시마현을 포함한 비회원 6개 단체 대표, 주중몽골·일본대사관,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이번 분과위원회는 창립대회를 통해 분과위의 첫 시작을 알리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립대회 개막식에서는 후난성 리젠중(李健中)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사무총장, 몽골 고비숨베르 아이막 바트소이르 지사(대독), 러시아 사하공화국 보리스프 김 부총리, 한국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일본 시가현 미카즈키 지사(대독)의 축사가 이어졌다. 본회의에서는 관광, 생태 문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초연설과 사례 공유 발표를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험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후난성은 각종 NEAR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제12대 의장을 역임하는 등 NEAR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을 통해 동북아 광역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3. 참고사항

후난성은 2006년에 개최된 제6차 NEAR 총회에서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12대 NEAR 의장단체를 역임하였으며, 2018년 제12차 총회에서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사무국의 주요활동

Main Activities of the Secretariat

POSCO MUSEUM

NEAR Members Workshop 2024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 May 22(Wed) - 24(Fri), 2024 | Gyeongju, Gyeongsangbuk-do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Local Authorities

사무국의 주요활동

I. 2024 회원단체 워크숍

1. 행사개요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경주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국 9개, 일본 4개, 한국 14개, 몽골 13개, 러시아 4개,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1개 회원단체 및 1개의 옵서버 단체를 포함하여 6개국 44개 단체에서 국제관계대사 및 NEAR 담당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19명, 일본 6명, 한국 48명, 몽골 27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등)



올해로 15회를 맞은 NEAR 회원단체 워크숍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원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대상과 행사 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막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총리와 한국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몽골 불강아이막 다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의 축사, 중국 랴오닝성 캉이 부주

임의 의장단체 발표, 한국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NEAR 사무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회원단체의 NEAR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및 회원단체 주요사업 홍보 등의 발표,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회원단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 실시한 회원단체 일대일 친교의 시간에서는 교류희망 회원단체와 국제교류 현안사항을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단독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2. 주요활동

사무국 업무보고

NEAR 사무국에서는 2023년 사업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사무국은 2023년 주요성과로 제14차 NEAR 총회, 각종 분과위원회, 2023 NEAR 실무자 워크숍, 2023 NEAR 국제포럼 등을 소개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로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일정을 소개하였으며, 2024 NEAR 회원단체 연수 프로그램, NEAR DAY, 2024 NEAR 청년리더스 포럼,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공모전 개최 내용을 발표하면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회원단체 발표

중국 후난성과 네이멍구자치구는 각각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 및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일본 도야마현과 시마네현은 환경분과위원회와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의 활동보고 및 개최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몽골 흠스골아이막에서는 지역의 관광 및 국제교류현황에 대해 홍보하고 다른 참가단체의 관심을 유도했으며, 러시아 연해주, 이르쿠츠크주, 톰스크주는 각각 주요추진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회원단체와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회원단체 토의

특히 NEAR 30주년을 2년 앞둔 현재 회원단체가 기대하는 NEAR 발전방안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및 자매결연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지방정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직항 항공노선 재개, ▲NEAR 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 NEAR 전시부스 설치 건의 등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이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대화와 협력, 교류에 있어 매우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3. 부대행사

회원단체 일대일 소통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가 회원단체 중 교류희망 회원단체와 국제교류 현안사항을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단독 소통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총 14개의 회원단체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하였으며, 이로써 회원단체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

5월 22일은 개최지인 경주의 동궁과월지, 첨성대에서 야경투어를 실시하였고 5월 23일은 경주엑스포공원을 관람하였다. 마지막 날인 5월 24일은 경주의 대릉원을 관람하는 문화탐방 팀과 포스코 역사박물관 및 홍보관을 관람하는 산업시찰 팀으로 관심분야를 나누어 진행되었다.



II. 한국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

1. 행사개요

사무국은 5월 22일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13명) 및 실무자 30여 명을 초청,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제관계대사: 정해관(대구), 박선철(광주), 박영규(대전), 박철민(울산), 이호식(세종), 김인철(경기), 조영준(강원), 곽태열(충북), 우성규(충남), 박철주(전남), 채진원(경북), 배병수(경남), 고윤주(제주)
- 회원단체: 김현혜(대구), 김중현(광주), 이연정(대전), 류지은(울산), 김묘련(세종), 마잉루이(경기), 이수연(강원), 김지선(충북), 정보라(충남), 고다혜(전남), 조미혜(경북), 정재윤(경남), 현재희(제주)



2. 주요내용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은 ▲국내회원단체들의 NEAR를 활용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국내 회원 단체들의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 방안 ▲NEAR 회원단체 워크숍 국내회원단체 소재지 순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은 5월 23일 개최한 「NEAR 회원단체 워크숍」 개최식에 참석한 데 이어 경북도 행정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몽골 불강아이막 단독면담, NEAR 회원단체 간 다자 및 양자 교류의 시간으로 마련된 친교의 시간에도 적극 참석하였다.



III.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1. 행사개요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간 영남대학교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이 연수프로그램은 작년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서 몽골 등 회원정부의 요청으로 NEAR 회원정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NEAR 회원정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NEAR 사무국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연수프로그램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관련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NEAR 회원정부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등 계획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으며, 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 총 1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연수 커리큘럼은 국제교류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 문제인 도시화, 지역활성화, 디지털경제 등의 주제 강의와 문화체험, 그리고 현장학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참가 공무원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액션플랜 수립 및 발표 등 동북아 회원정부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고 고국에 돌아가서 정책제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 참가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2. 주요내용



연수 1일 차인 6월 26일 입소식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입소식에는 영남대학교 최외출 총장이 참석 및 <한국 발전 경험 공유 사례: 새마을운동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특강까지 준비해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도 <새마을 운동의 원리와 전략>, <한국 경제발전 전략>,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경제>, <한국 도시 개발 방법론>, <경제개발과 산림녹화>에 대한 이론강의와 현장 견학, 문화체험 등이 10일간 이루어졌다.



특히 7월 1일에는 NEAR 사무국을 방문하여 임병진 NEAR 사무총장과 의 간담회를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2024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실시 배경과 NEAR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간담회에서 연수프로그램으로 얻어가고 싶은 점, 느낀 점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7월 3일에는 액션 플랜 발표 및 평가, 피드백이 있었으며 수료식에서는 우수팀들에 대한 시상식과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총평가도 이루어졌다.



IV. NEAR 사무국,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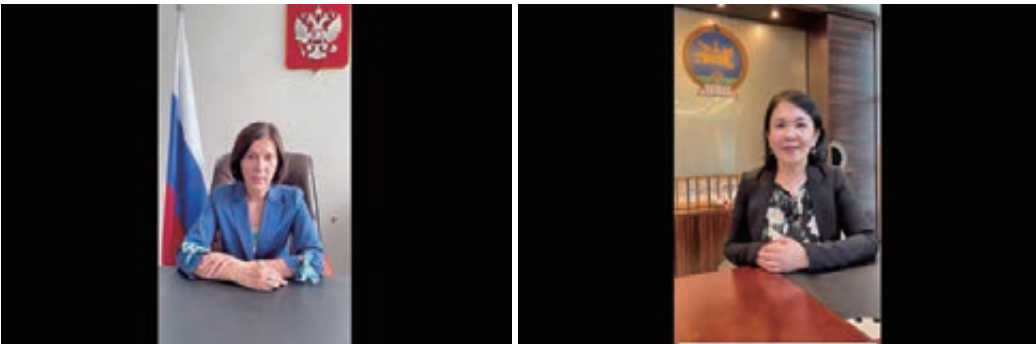


1. 행사개요

NEAR 사무국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출신 국내 거주 유학생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청년리더스포럼은 ‘하나 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전문가 강의, 팀별토의,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의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2. 행사내용

개회식에는 임병진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진일표 주부산 중국 총영사, 두드니크 옥사나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 및 척터 우너르자야 주부산 몽골 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와 소감 발표가 있었다.



6박 7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팀별토의 및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포항 영일대 바닷가투어, 전통문화체험관, 경주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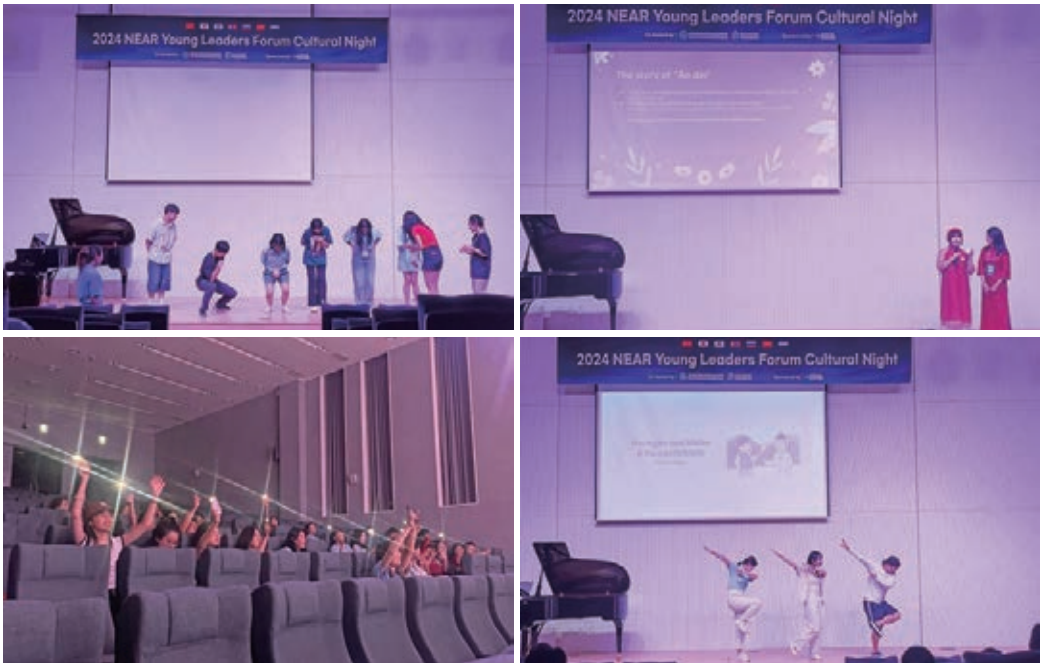




임병진 사무총장은 폐회식 행사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동북아 청년들이 서로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에 돌아가서도 이번 청년리더스포럼에서 얻은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포럼 마지막 날 저녁에 진행된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별 문화소개 및 개인장기자랑 세션을 통해 NEAR의 핵심 이념인 상호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 참고사항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NEAR 사무국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제교류행사로서, 동북아시아 청년들의 상호이해 및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V.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 행사개요

지난 10월 8일, NEAR 사무국은 창설 28주년을 맞이하여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1996년 출범 이후 90개의 회원정부를 보유한 동북아 최대 국제기구로 성장하기까지, NEAR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국내 회원단체 등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 역대 NEAR 사무총장,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및 주부산 외교단, 대학기관 등 경상북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8년간의 NEAR의 성장 및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하였다.

또한 창립 이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라는 한글 명칭을 사용해 왔었으나,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판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더욱 알기 쉽도록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받았다.



3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세계와 갈등과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제 및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내외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NEAR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VI.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1. 행사개요

NEAR 사무국에서는 차세대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거주 청소년들 간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신화이야기’로 9월 13일까지 접수하였다.

2. 주요내용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은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39개 지방정부에서 총 678점이 출품되어 우수한 기량을 겨뤘다.

국가	참가	참가 지방정부
중국	377	• 11개 회원단체, 1개 옵서버 후난(29), 허난(51), 산시(31), 쓰촨(2), 랴오닝(30), 후베이(12), 헤이룽장(16), 간쑤(55), 닝샤후이족(38), 네이멍구(43), 안후이(56), 톈진(14)
일본	116	• 4개 회원단체, 1개 옵서버 도야마(46), 효고(14), 돗토리(41), 시마네(9), 미야기(6)
한국	102	• 10개 회원단체, 1개 비회원 부산(8), 대구(6), 광주(2), 울산(7), 경기(22), 충남(2), 전남(6), 경북(24), 경남(1), 제주(19), 서울(5)
몽골	24	• 5개 회원단체 불강(8), 돈드고비(3), 우부르항가이(9), 옴스(1), 다르항오울(1)
러시아	59	• 6개 회원단체 하바롭스크(4), 연해주(2), 캄차카(16), 톰스크(18), 이르쿠츠크(13), 사할린(6)

NEAR 사무국은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와 함께 엄정한 외부평가를 통해 총 155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상에는 한국 서울특별시 김지유의 ‘환웅의 홍익인간’이 선정되었으며, 공모의 주제에 맞는 한국의 단군신화를 표현하여 예술성과 상징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중국 랴오닝성 양하오통의 ‘도모 원군의 순찰’, ▲중국 후난성 후닝거의 ‘상강의 요정’, ▲중국 후난성 원커의 ‘용의 전설’, ▲중국 후난성 핑푸린의 ‘팔선의 바다를 건너다’, ▲일본 돗토리현 하마다 준세이의 ‘여덟 개의 뱀을 물리치다’, ▲일본 효고현 다지카 마이노의 ‘신들의 위대하고 긴 이야기’,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김우진의 ‘제주 용두암의 신화’,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오온상의 ‘해와 달’, ▲몽골 옴스아이막 갈 게레마의 ‘내가 아는 몽골 나담’, ▲러시아 톰스크주 스테파네코 소피아의 ‘샤먼의 전설’ 등 10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장려상에는 한국 충청남도 강한서의 ‘바리공주가 선정되는 등 20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한국 경상북도 이지안의 ‘마법 피리, 만파식적으로 보는 한국신화’ 등 124개 작품이 입선에 선정되었다.

3. 참고사항

NEAR 사무국은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관련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55명에게 상장과 시상품을, 그 외 참가자들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참가확인증을 제작하여, 5개국 36개 지방정부에 발송하였다.

또한, 역대 수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도 내 등에 순회 전시하였고 올해는 포항 호텔아트 페어에서 초청전시를 하였다. 내년에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수상작품들을 한국 회원 단체에 한해 전시할 계획이다.



2024 최우수_한국 서울특별시
제목: 환웅의 홍익인간



2024 우수 중국 후난성
제목: 상강의 요정



2024 우수 몽골 옴스아이막
제목: 내가 아는 몽골 나담



2024 장려 일본 시마네현
제목: 아마타노 오로치 전설



2024 장려 러시아 톨스쿠주
제목: 쿠티크와 빛



2024 입선_한국 경상북도
제목: 마법 피리, 만파식적으로 보는 한국신화

VII. NEAR 사무국, 지역 청소년 대상 국제이해 교육 실시

1. 행사개요

NEAR 사무국은 지역 청소년의 국제이해도 제고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포항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국제이해 교육은 러시아, 일본, 몽골 순으로 각국 전문위원과 주재관이 포항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가별 NEAR 회원단체 현황과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 주요내용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의 개항과 주요 관광지, 관습과 문화 등을 소개하였으며 러시아의 전통놀이와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일본의 개항, 전통 연극, 대학입시제도 및 대학 문화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전통 놀이인 켄다마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몽골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문화강의에 이어 몽골 전통 놀이인 어니성 터글럼 퍼즐놀이와 전통 복장 및 전통음식 호쇼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고등학교 담당 지도교사는 “이번 교육이 주변국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문화체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3. 참고사항

NEAR 사무국은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이해도와 어학 등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주, 구미, 안동, 영주 등 경상북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1 Dialogue

NEAR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 May 22(Wed), 2024 | Hilton Hotel, Gyeongju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2024 NEAR 활동 현황 및 뉴스

2024 Activities and News of NEAR



2024 NEAR 활동 현황 및 뉴스

I. 주요성과

NEAR의 외연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

-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 추진' 및 특별회원제도 신설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의 연합조직으로 확대되어 지방외교의 외연이 확장
- 중국 칭하이성, NEAR의 82번째 회원단체 가입 신청
중국 지방정부의 NEAR 신규회원 가입은 2023년 간쑤성 이후로 14번째
-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NEAR의 2번째 준회원 가입 신청
- 한국 포항시 NEAR 특별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 일본 오키나와현 NEAR 옵서버회원 가입

NEAR 플랫폼 활성화

- 동북아 역내 중앙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NEAR 주요행사 회원정부 역대 최대 참석
- 2024 NEAR 회원정부 워크숍: 6개국 44개 단체 130여 명 참석
-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 6개국 38개 단체 100여 명 참석

2024년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사무국의 적극적인 분과위 참여 지원으로 회원정부 분과위 활성화
- 제1회 NEAR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7. 25.~7. 27.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 제22회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8. 21.~8. 26. 일본 시마네현)
- 제1회 NEAR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10. 22.~10. 24. 중국 후난성)

NEAR 국제적 지명도, 영향력 확대

- 사무총장의 회원정부 고위급, 주한 회원정부대사·총영사 면담 대폭 확대 및 사무총장 초청 증가
- (회원정부 고위급 면담) 중국 랴오닝성 성장, 후난성 상무 부성장,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일본 시마네현 지사, 오키나와현 지사, 러시아 이르쿠츠크즈 지사, 사하공화국 수반, 연해주 총리, 부랴티야 공화국 수반, 몽골 지사·부지사 6개국 56명
- (한국 주재 각국 대사 예방) 중국, 일본,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미얀마 등
- (초청)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간쑤성 실크로드국제박람회 등 9건

II. 주요행사

NEAR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

- 경상북도 경주 힐튼호텔에서 5. 22.~5. 25.간「2024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개최함
-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4개 단체 130여 명 참석

한국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 5월 22일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 및 실무자 30여 명을 경주로 초청해 'NEAR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함
- 정해관(대구), 박선철(광주), 박영규(대전), 박철민(울산), 이호식(세종), 김인철(경기), 조영준(강원), 곽태열(충북), 우성규(충남), 박철주(전남), 채진원(경북), 배병수(경남), 고윤주(제주) 등 참석함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개최

- 회원정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2024 NEAR 회원정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6. 26.~7. 5.(9박 10일간) 영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최함
- 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 총 15명이 최종 선발되어 국제교류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 문제들에 대해 주제강의, 현장학습, 현장체험을 함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 한동대학교에서 8. 5.~8. 11.간, 6개국 국내 거주 유학생 38명이 참가한「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함
-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등 동북아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연사 초청 강연, 토크 토의 및 발표 등을 진행함

제12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 주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신화이야기
- 공모대상: NEAR 회원단체, 준회원, 옵서버 만 12세~19세(중,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 출품작: 총 678점(중국 377점, 일본 116점, 한국 102점, 몽골 24점, 러시아 59점)
- 역대 수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한국 지방정부에 순회 전시회 개최 중임

지역 청소년 대상 국제이해교육 실시

-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이해도 제고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포항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NEAR 사무국, 지역 청소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함
- 내년도에는 경주, 구미, 안동, 영주 등 경상북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

NEAR 국내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명칭변경 및「NEAR DAY」개최

- 경상북도 포항 라한호텔에서 10. 8. 창설 28주년을 맞이하여「NEAR DAY」를 개최함
- 1996년 출범 이후, 90개 지방정부로 확대된 NEAR의 발전해 온 역사와 역할에 대해 홍보함
-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

Ⅲ. 사무국 뉴스

1. 한국 회원정부와 협력 및 교류강화

이영석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장, 사무국 방문

이영석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장은 1.16 NEAR 사무국을 방문, 임병진 NEAR 사무총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사무총장은 2023년 NEAR 활동 성과와 2024년 NEAR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도 NEAR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영석 본부장은 NEAR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NEAR 사무총장,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예방

임병진 사무총장은 1.25 경상북도 청사를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를 예방하고, 금년도 NEAR 사무국 업무방향, 신규사업 추진내용, NEAR 현장개정 추진(특별회원 조항 신설) 등을 설명하고, 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철우 지사는 금년도 사무국 사업방향 및 신규사업, 특별회원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철우 지사 예방 계기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채진원 국제관계대사를 만나 NEAR의 금년도 사업을 설명하고, NEAR 행사에 적극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NEAR 사무총장, 포항시장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31(수) 이강덕 포항시장을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NEAR 활동과 금년도 NEAR 활동 방향 및 주요 행사를 소개하며, 포항시는 NEAR 사무국의 영구소재지이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로 NEAR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특별회원 제도 신설)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고, 포항시의 포항국제불빛축제,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시 NEAR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신규회원정부 2개 가입, 「제14차 NEAR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NEAR의 활동을 평가하고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포항시도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경상북도 포항시, NEAR의 특별회원 가입 신청

경상북도 포항시는 2024년 5월 NEAR 사무국에 특별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NEAR 사무국은 그간 포항시가 NEAR 상설 사무국 유치(2005년) 이후 사무국 예산 지원 등 NEAR의 장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하여 포항시의 특별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한동해 중심도시이고 인구는 약 50만 명이다. 1,685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 포스코그룹이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NEAR 사무총장, 「2024포항국제청년캠프」 참석 및 축하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9.19(목) NEAR 특별회원인 경북 포항시가 개최한 「2024포항국제청년캠프」 환영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교류의 역사와 공통의 문화를 보유한 가까운 이웃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 갈등과 불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간의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24포항국제청년캠프」는 포항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포항시 청년들에게 중국 일본의 자매우호교류도시 청년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도시의 청년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NEAR 사무국,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 참석

NEAR 사무국은 11.5(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고 북극해 이용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포항 영일만항의 역할과 환동해권 물류 항만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가 대한민국 국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재 국회의원의 개회사, 정희용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상휘, 김기현, 조경태, 윤재옥, 이인선, 이만희, 이달희, 권영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영일만항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일행 사무국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11.7(목) NEAR 사무국을 방문한 진기훈(前 대구시국제관계대사)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진기훈 사무총장은 대구시가 2026년 8월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NEAR 회원정부들을 대상으로 대회 홍보 및 참여를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동북아지방정부연합(NEAR)이 △총회 △그라운드 실무위원회 △회원정부 워크숍 △산하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현재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내 최대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하고, NEAR 산하에 체육분과위원회도 있는 만큼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원정부 대상 홍보, 참여유도 등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AR 사무국, 2024 K-실�크로드 푸드페스티벌: 누들페스타 개막식 참석

NEAR 사무국은 11.8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개최한 「2024 K-실�크로드 푸드페스티벌: 누들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누들(면요리)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푸드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공연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테이지와, 실�크로드 국가들의 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음부스, 그리고 실�크로드 문화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전시존 등이 운영되었다. 이 외에도 플리마켓, 포토존과 같은 다채로운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2024 K-실�크로드 푸드페스티벌」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동서문화 국제교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일행, NEAR 사무국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12.11(수) NEAR 사무국을 방문한 한국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 일행을 접견하고 NEAR 사무국과 경상북도의 협력증진방안, 향후 NEAR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경상북도가 동북아광역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NEAR 사무국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경상북도의 지원과 회원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외연이 지속 확대되고 NEAR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총회를 비롯한 국제관계대사+1간담회 및 회원정부워크숍 등 내년도 주요 행사 계획을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사무국 방문으로 NEAR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NEAR와 경상북도가 특별한 관계인 만큼 2025년도 NEAR 주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와 NEAR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2. 중국 회원정부와 협력 및 교류강화

중국 칭하이성, NEAR의 82번째 회원단체 가입 신청

중국 칭하이성은 최근 사무국에 NEAR 회원정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금년도 9월 개최 예정인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 정식 의결할 예정이며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승인되면, NEAR 회원단체는 총 82개로 늘어나게 된다. 칭하이성의 이번 신규가입 신청은 2021년 랴오닝성 가입, 2023년 간쑤성 가입 이후 중국 회원단체로는 14번째 가입이다.



임병진 사무총장, 리러청 NEAR 의장(랴오닝성 성장) 예방

임병진 사무총장은 4.15(월)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NEAR 제15대 의장인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예방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리러청 성장에게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NEAR의 금년도 주요 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특히 의장단체인 랴오닝성이 올해 개최할 고위급 실무위원회와 내년도 총회의 성공을 위해 사무국과 랴오닝성의 긴밀한 협력 및 리러청 성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리러청 성장은 랴오닝성이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과 동북 전면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랴오닝성이 개최할 고위급 실무위원회와 총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북아 각국 지방정부들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NEAR 사무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EAR 사무총장, 간쑤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네이멍구자치구 대표단 접견

임병진 사무총장은 5.22(수)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 참가한 간쑤성, 후난성,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워크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워크숍 행사라고 소개하면서 회원정부들이 좋은 교류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올해 사무국과 공동 개최하는 제1회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7월)와 후난성 혁신+분과위원회(10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회원 가입 후 첫 NEAR 행사에 참가하는 간쑤성 대표단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NEAR 활동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회원정부 대표들은 NEAR 회원정부 워크숍에 초청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NEAR 사무총장, 산시성, 산둥성, 칭하이성과 텐진시 대표단 접견

임병진 사무총장은 5.22(수)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 참가한 산시성, 산둥성, 칭하이성과 텐진시 등 중국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워크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워크숍 행사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회원단체들이 워크숍을 통해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회원정부들과 좋은 교류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5일에 NEAR의 신규 가입을 신청했던 칭하이성이 NEAR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중국회원정부 대표들은 행사 초청에 감사 인사를 표하였으며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의 규모와 대표단 급수 등을 볼 때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타 회원정부와 교류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EAR 사무총장, 랴오닝성 대표단 접견

임병진 사무총장은 5.22(수)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 참가한 강이(康轶)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을 접견, 고위급실무위원회 개최 문제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특히, 금년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개최될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 및 「디지털경제 분과위원회」 행사는 금년 NEAR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개최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이 부주임은 이번 행사 초청과 의장단체에 대한 배려 등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금년 의장단체의 주요 행사인 고위급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 특히 개최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허진텐 후난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대표단 일행, NEAR 사무국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6.3 NEAR 사무국을 방문한 허진텐 후난성 이양시 당위 비서장 겸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후난성 대표단의 사무국 방문을 환영하고, NEAR 최근 근황을 소개하면서 후난성이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혁신+분과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무국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진텐 비서장은 동북아지역 최대 규모의 지방협력기구인 NEAR가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10월 후난성에서 친환경 발전을 주제로 개최될 혁신+분과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NEAR 사무총장, 중국 후난성 장잉춘 상무부성장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6.4 서울에서 방한 중인 장잉춘 후난성 상무부성장을 접견, 혁신+분과위원회 개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장잉춘 부성장은 NEAR가 동북아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NEAR 플랫폼을 통해 후난성을 널리 알려주기를 희망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혁신+분과위원회에 많은 NEAR 회원정부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NEAR의 역할 평가에 감사를 표시하고, 금년 10월 후난성이 개최 예정인 혁신+분과위원회는 의장단체인 랴오닝성의 고위급실무위원회(9월), 네이멍구자치구의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7월)와 함께 금년도 NEAR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고 하고, NEAR 사무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함께 참석, 동북아지방협력에 있어 NEAR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시하였다.



NEAR 사무국,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협력 분과위 참여 지원

NEAR 사무국(사무총장 임병진)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가 7.26~27간 어얼뉘쓰에서 개최되는 「제1회 NEAR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관련 회원단체(중국 제외)에 초청장을 발송, 참석 독려 등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4개국 17개 회원정부 30여 명(일본2, 한국8, 몽골19, 러시아1)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한국의 강원도, 러시아 톨스크주가 발표를 신청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2024 신에너지·신소재 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협력 분과위원회 헌판식에 참석하고 양진 부주석과 면담을 거쳐 NEAR 사무국과 네이멍구자치구와의 협력 문제 및 에너지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NEAR 에너지 분과위원회는 동북아지방정부 간 에너지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의 에너지 대성(大省)인 네이멍구자치구 정부가 지난해 울산 개최 총회에 설립을 신청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이다.



NEAR 사무국-랴오닝성, NEAR 고위급 실무위 개최 관련 업무협의

NEAR 사무국 최주화 국제협력부 부장은 7.21 방한 중인 자오홍빈(赵洪斌)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부주임과 서울에서 만나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개최(9.24~25)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최주화 부장은 이번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금년 NEAR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전제, 개최 일자가 2개월 여박에 남지 않은 만큼 구체행사 내용 확정 및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초청장 발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였으며 행사 성공을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자오홍빈 부주임은 랴오닝성도 금년 행사를 매우 중시, 고위급 실무위 모든 행사에 부성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하고,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행사 관련 랴오닝성이 준비한 구체 개최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번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국가급 행사인 랴오닝국제투자무역상담회(辽洽会)와 함께 치뤄진다고 밝혔다.



NEAR 사무총장, 「2024 세계 신에너지·신소재 대회」 개막식 참석 및 축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네이멍구자치구정부가 7.26(금) 어얼뉘쓰(鄂尔多斯)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세계 신에너지·신소재 대회 및 NEAR 에너지 협력 분과위원회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하였다.

2024 세계 신에너지 신소재 대회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주제로 ‘개막식’, ‘전시회’, ‘2개 대회’, ‘2개 발표’, ‘3개 서브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고, 중국과학원, 중국 공정원, 에너지 관련 기업, 대학, 지자체에서 1,5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국가급 행사인 ‘2024 세계 신에너지·신소재 대회’가 에너지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지역 및 세계 에너지 산업의 공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네이멍구자치구가 코디네이터를 맡은 에너지 협력 분과위원회가 NEAR의 대표적인 분과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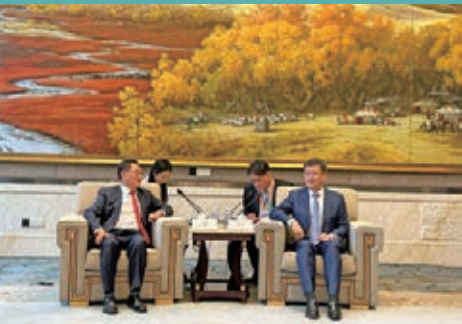


NEAR 사무총장, 양진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7월 26일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뉘쓰시에서 개최된 2024 NEAR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계기에 양진(杨进)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과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NEAR의 최근 활동 및 금년 사업, NEAR 중국 회원정부 현황을 소개하고 네이멍구자치구의 NEAR 활동 적극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네이멍구자치구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맡아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과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NEAR 사무국은 향후에도 에너지 분과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진 부주석은 임 사무총장의 네이멍구자치구 방문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NEAR의 각종 활동을 통해 네이멍구자치구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였다.



NEAR 사무총장, 「2024 중국 간쑤성 경제무역·문화관광·농업 협력 홍보회」 참석 및 축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8.7(수) 서울시 엠베서더 풀만호텔에서 간쑤성이 주최한 「2024 중국 간쑤성 경제무역·문화관광·농업 협력 홍보회」에 참석하여 축사하였다.

장바오전(张宝军) 간쑤성 외사판공실 주임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쓰모우쥔(石谋军) 간쑤성 당부서기, 팡쿤(方坤) 주한 중국 대사 대행, 김준형 국회의원, 임병진 NEAR 사무총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이지형 KOTRA 경제 통상 협력 본부장의 축사가 있었다.

임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개최하는 경제무역·문화관광·농업 협력 홍보회는 간쑤성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간쑤성과 한국 간의 실질적 협력은 물론, 한중 양국의 우호 협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NEAR 사무총장, 산시성 개최 「2024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 영상 축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산시성(山西省)이 개최하는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9.20~9.22)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산시성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에너지 고품질 발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산시성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절감 등 인류 공동 목표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포럼 개막식에는 탕당제 산시성 성위원회 서기가 환영사를 하였고, 진상천 성장이 개막식을 주재하였다. 또한,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학원 원사, 중국 주재 외교관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였다.

한편,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은 2016년부터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산시성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급 국제 환경포럼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고위급 대화 및 협력 플랫폼이다.



NEAR 사무총장, 왕즈중 칭하이성 외판주임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9.25(수)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왕즈중(王志忠) 중국 칭하이성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칭하이성이 NEAR의 82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하며, 향후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NEAR 플랫폼을 활용해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다.

왕즈중 주임은 칭하이성의 경제 산업, 광물 매장량, 독특한 소수민족 문화 및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NEAR 행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총장의 칭하이성 방문을 요청했다.



NEAR 사무총장, 「제5회 중국 랴오닝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석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이 9.26(목), 중국 선양시에서 개최된 「제5회 중국 랴오닝국제투자무역상담회」(이하 랴오차후이, 辽洽会)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가오윈룽(高云龙) 중국정협부주석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하오펑(郝鹏) 랴오닝성 당서기, 자오룽(赵龙) 푸젠성(주빈성) 성장, 가나스기 겐지(金杉宪治) 주중 일본 대사가 축사를 했으며, 손경식 한국 C그룹 회장 등이 발표를 했고,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은 기조연설을 맡았다. 한편, 박병석 전 국회의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VIP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하오펑서기는 랴오차후이가 동북전면진흥(东北全面振兴)과 대외 개방의 새로운 전초기지를 촉진하는 행사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부터 ‘중국’ 명칭을 처음 사용하여 국가급 플랫폼이 되었다고 밝혔다.



NEAR 사무총장, 라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개막식 참석 및 축하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9.26(목) 라오닝성 선양에서 「제1회 라오닝 국제우호교류도시무역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하사에서 “금번 무역대회는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 지방정부, 비즈니스협회 단체, 상공인들에게 다자 및 양자교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하면서 우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구축하려는 라오닝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라오닝성의 국제 우호교류 및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상담회로 리라청 라오닝성 상장, 상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 칼리 하시미 주중 파키스탄 대사, 야쿠브 쿠모치 주중 폴란드 대사, 치메드 몽골 읍스아이막 지사, 유정복 한국 인천시장 등 라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대표, 기업인, 중국 주재 외교부 대표 등이 48개국 300여 명 참석하였다.



NEAR 사무국, 중국 후난성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참여 지원

NEAR 사무국(사무총장 임병진)은 중국 후난성 정부가 10.22~10.24간 장가계시에서 개최하는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개최 관련, 회원정부(중국제외)에 초청장을 전달하고 참석 독려 등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후난성 리젠중(李建中) 부성장 주재 회원정부 단체접견, 장가계시 당서기 면담, 회원정부 대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NEAR 사무국과 회원정부 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는 코디네이터 정부인 중국 후난성이 처음 개최하는 분과위원회로, 금번 회의는 관광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향후 혁신이라는 큰 틀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NEAR 사무총장, 류거안 장가계시 당서기 초청 오찬 회동

임병진 사무총장은 10.22(화) 류거안(劉革安) 후난성 장가계시 당서기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NEAR 사무국과 후난성 장가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환대에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후난성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가 장가계시에서 영구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혁신플러스 분과위가 장가계시에서 개최됨으로써 장가계시를 홍보하고 장가계의 고품질 발전과 녹색 발전 모습을 동북아 각국 지방정부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류거안 당서기는 장가계의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특히 장가계시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한국과 장가계시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NEAR 사무총장, 리젠중 후난성 부성장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10.23(수)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 행사에 참가한 회원정부 및 유관기관 대표단과 함께 리젠중 후난성 부성장을 면담, NEAR와 후난성과의 협력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리젠중 부성장은 후난성의 현황과 중점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향후 NEAR와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등 다자교류 플랫폼을 통해 ① 산업협력 확대, ② 인문교류, 특히 청년교류 강화, ③ 경제 및 무역협력 심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전개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임병진 사무총장은 후난성이 그간 제12대 의장 역임 등으로 NEAR 발전에 기여해 왔고, 이번엔 혁신플러스 분과위를 설립, 창립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내년 제15차 NEAR 총회에 후난성 성장이나 부성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내년도에 다양한 NEAR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후난성이 도움이 될 만한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NEAR 사무총장, 산둥성 개최 「2024 해양협력발전 포럼」 영상 축하

임병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총장은 산둥성이 개최한 「2024 해양협력발전 포럼」(10.24~10.25)에서 영상 축하를 하였다.

이번 포럼은 '푸른색 바다로부터 미래를 - 건강하고 번영하는 해양과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병진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해양협력발전 포럼은 동아시아 내 해양분야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중요 플랫폼”이라며, 이번 포럼은 박람회와 전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층 더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어, 산둥성의 해양분야 성과를 잘 보여준 행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금번 「2024 해양협력발전 포럼」은 41개 국가 및 지역에서 667개 해양 관련 기관, 대학, 과학 연구기관, 기업의 대표, 전문가, 학자들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모여 해양 협력을 공동 기획하고 해양 개발과 복지 증진을 함께 도모한 행사이다.



3. 일본 회원정부와 협력 및 교류강화

임병진 사무총장, 2024 회원단체워크숍 일본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임병진 사무총장은 5.22, NEAR 가입 검토 중인 오키나와현과 별도 면담하고, 23일 도야마현, 시마네현, 오키나와현과 면담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도야마현과 시마네현이 20년 넘게 각각 환경분과위원회와 교육 문화교류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온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워크숍의 의의와 금년 NEAR 행사를 소개 및 NEAR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NEAR 회원 가입을 검토 중인 오키나와 현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회원정부와 의미 있는 교류를 하고 조속히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NEAR 사무국, 일본 효고현과 온라인 업무 간담회 개최

NEAR 사무국은 7.9, 일본 회원단체인 효고현과 실무자 간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최주화 국제협력부장은 효고현이 그간 방재분과위원회 운영, 의장단체 역임 등 NEAR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고, 일시 정체가기간이 있었으나 향후 NEAR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NEAR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오오에 신이치로 국제교류관은 NEAR와의 협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NEAR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NEAR 사무국 일본 출장 계기 효고현 방문 시 보다 진전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효고현은 2002년부터 방재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신·이와지대 지진(1995.1.17)'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방재 관련 노하우를 매년 NEAR 회원정부들과 공유해 왔다.



일본 시마네현 주재관, 사무국 방문 및 업무 협의

일본 주재관으로 시마네현 현지 근무 중인 이토하라 주재관이 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국과 업무 협의를 하였다.

사무국은 8월에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 참석 계기, 사무총장의 일본 출장 일정 및 하반기 사무국 행사를 소개하면서, 일본 주재관으로서 각 회원정부와 활발히 교류하여, NEAR 발전에 적극 기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토하라 주재관은 시마네현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주재관으로서 NEAR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사무국에는 러시아, 몽골, 중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러 사정으로 일본현지에서 주재관 업무를 하고 있다.



NEAR 사무총장, 일본 효고현청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시마네현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참석 계기, 8.22(목) 효고현청을 방문하여 시오미(塩見) 국제국 국장과 면담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NEAR의 최근 근황을 소개하고 고위급실무위원회 및 혁신 플러스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였다. 또한 20년 넘게 방재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시오미 국장은 방재분과위원회에 관해서 현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회원정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회원정부가 방재에 관하여 문의 및 요청을 할 시에는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오미 국장은 사무국에서 “회원정부공무원들이 한국 NEAR 회원정부에서 1~2주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NEAR 사무총장, 일본 시마네현 마루야마 지사 예방

임병진 사무총장은 8.21(수)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참석 계기로, 시마네현청을 방문하여 마루야마 타즈야(丸山 達也) 지사와 면담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시마네현이 20년 넘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근 NEAR가 외연이 확대되고 각종 행사에 회원정부 참가가 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올해 주요 행사 소개와 함께 향후에도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마루야마 지사는 임병진 사무총장이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참석을 위해 시마네현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한일관계가 회복 국면에 있는 만큼 시마네현이 NEAR 플랫폼을 통해 한국회원정부를 비롯한 NEAR 회원정부들과 교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선양에서 개최되는 고위급실무위원회에 고위급 참석의 뜻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총회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시마네현을 방문하여 마루야마 지사와 면담하고, 교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NEAR 사무총장, 일본 오키나와현 타마키 지사 예방

임병진 사무총장은 8.23(금) 오키나와현청을 방문하여 타마키 데니(玉城 デニー) 지사와 면담,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오키나와의 지역외교이념과 목적이 NEAR의 이념과 일치한다고 하고, NEAR의 최근 동향, 일본회원정부 활동 및 금년 9월 개최 고위급실무위원회 및 10월 개최 후난성 혁신 플러스 분과위원회 행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오키나와현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도 총회에 타마키 지사님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에는 30개국 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 국제협력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NEAR 가입을 통한 다자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와 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포함한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 옵서버로 가입해서 NEAR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빠른 시간 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오키나와의 국제협력 확대와 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다.



4. 몽골 회원정부와 협력 및 교류강화

NEAR 사무총장, 밤부수르 몽골 내각관방부 차관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4.18(목) 몽골 내각관방부를 방문하여 오르가말 밤부수르(Urgamal Byambasuren) 내각관방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그간 몽골 중앙정부가 몽골 회원정부의 NEAR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몽골 회원단체들의 NEAR 활동 현황과 금년도 NEAR의 고위급 실무위원회, 몽골 회원단체에서 제기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에 밤부수르 차관은 NEAR가 동북아시아 역내 지방정부 간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각관방부가 몽골 지방정부들의 국제 교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몽골 회원정부의 NEAR 행사 참여에 원활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내각관방부가 NEAR 사무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NEAR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NEAR 사무총장, 몽골 회원단체장 간담회 개최

임병진 사무총장은 4.17(수)~4.19(금)간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방문, 투신(Tuushin)호텔에서 「NEAR 몽골 (부)회원정부 간담회(4.18)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몽골측 르학와자브 흠스굴아이막 지사, 아즈자르갈 다르함오올아이막 지사, 바트소이르 고비숨베르아이막 지사, 열르 도르노드아이막 부지사, 사잉처그 셀렝그아이막 부지사, 산즈마타우 아르갈가이아이막 부지사, 자르갈사이항 불가이아이막 부지사, 소미아수를 우 부르항가이아이막 부지사, 바트사이항 헝티아이막 부지사 등 9개 NEAR 몽골 회원정부 지사 3명과 부지사 6명이 참석하였다. 몽골 회원정부들은 오는 6월 개최하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 경상북도 유학생 유치 사업, NEAR 사무국을 통한 몽골 회원정부 문화관광홍보 등 많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참석인사들은 간담회 후 투신(Tuushin)호텔에서 사무총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였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NEAR 사무국의 주선으로 NEAR 몽골 회원 (부)정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의 역사와 경제발전 현황, 몽골 학생 유학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몽골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NEAR 사무총장,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 몽골 대표단과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이 5.22 「2024 NEAR 회원정부 워크숍」에 참가한 몽골 회원정부 부지사, 국장 등 고위급 참가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후 최근 NEAR 활동방향과 금년도 NEAR 주요 행사 계획 등을 소개하였으며, 앞으로도 몽골 회원정부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자르갈사이항 불가이아이막 부지사는 “금년 회원단체 워크숍 참석이 두 번째”라고 하고,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에 매우 유용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투굴두르 셀렝그아이막 모니터링과장은 작년 실무자워크숍 때 공무원 연수사업에 대해 제안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님의 노력으로 「NEAR 회원단체 공무원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NEAR 사무총장, 몽골 읍스아이막 지사 및 흠스굴 부지사와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이 9.25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개최된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회의」에 참석한 몽골 읍스아이막 지사, 흠스굴아이막 부지사와 오찬 면담 시간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몽골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고위급실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치메드 읍스아이막 지사와 호약바타르 흠스굴아이막 지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서 NEAR 사무국은 몽골 회원정부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사업에 9명을 선발한 것과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석사장학생 2명 추천사실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NEAR 사무국, 몽골 불가이아이막 탐라문화제 참여 지원

NEAR 사무국은 NEAR의 회원정부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몽골 불가이아이막의 소속 예술단의 제주도 방문을 주선하고, 「제63회 탐라문화제」 기간(10.5~9) 중 불가이아이막 예술단의 몽골어 통역을 지원하였다. 몽골 불가이아이막 예술단은 10.5~9 「탐라, 그 찬란한 이름으로 현재와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마련된 제63회 탐라문화제의 공식 거리 퍼레이드(10.5)에 참가하였고, 또한, 10.6 몽골 민요와 대중 가요, 전통춤, 전통 악기 연주 등을 하나로 엮은 몽골 전통 공연을 제주도민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제주탐라문화제는 탐라문화원형(민속, 신화, 역사, 생활사 등)을 기반으로 제주 고유 콘텐츠를 브랜드화 해나가는 축제로 올해 63번째 개최되는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NEAR 사무총장, 밤브수릉 몽골 관방부 차관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11.21(목) 롯데시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밤브수릉 몽골 관방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몽골에서 밤브수릉 차관과 만난 이후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최근 NEAR 활동, NEAR와 몽골 회원 지방정부 간의 교류 상황, 그리고 몽골 회원 지방정부들의 NEAR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몽골 회원 지방정부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밤브수릉 차관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및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NEAR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 후 몽골 관방부가 몽골 지방정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몽골 지방정부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AR 사무총장, 새로 당선된 몽골 지사들에게 축하서한 발송

임병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실시된 몽골 지방선거에서 새로 지사로 당선된 몽골 지사 15명에게 당선을 축하하고, 최근 NEAR 동향 및 NEAR 내 몽골 회원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실시된 몽골 지방선거에서 울란바타르 포항 22개 아이막 중 15개 아이막의 지사가 교체되었으며, 11월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 표지사진(시계 방향으로): 바양울기아이막 지사 장가르, 불강아이막 지사 푸레브오치르, 고비알타이아이막 지사 칭바트, 고비숨베르아이막 지사 바트예르덴, 도르노드아이막 지사 열돈드고비아이막 지사 몽흐출롱, 자브항아이막 지사 우누르바야르, 오르흐아이막 지사 조리크바야르, 우부르항기아이막 지사 푸레브더르쑈, 음노고비아이막 지사 옹호바트, 투브아이막 지사 투무르추두르, 읍스아이막 지사 바트자르갈, 흄드아이막 지사 아마르사나, 흄스굴아이막 지사 투무르바타르, 헹타이아이막 지사 아요르보니



5. 러시아 회원정부와 협력 및 교류강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차기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은 최근 NEAR 사무국에 제16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NEAR 의장단체 선정은 의장단체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정부가 올해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될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의장단체 유지를 제안하며, 복수신청이면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단수 신청이면 그대로 내년도 2025년 총회 의제로 상정되어 정식 의결될 예정이다.

현 NEAR 의장단체는 중국 랴오닝성이며, 임기는 2025년 총회까지 2년이다.

한편, 부랴티아공화국은 인구 약 97만 명으로 바이칼 호수 남동쪽에 위치하며, 주도는 울란우데이다. 부랴티아공화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 큰 규모의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제1부총리 일행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5.22(수) 「NEAR 회원정부 워크숍」에 참석한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총리를 만나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울산 총회 참석에 이어 이번 워크숍에 직접 참석한 무힌 제1부총리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특히 부랴티아공화국이 차기 의장단체 유지를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부랴티아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총리는 워크숍 초청에 감사를 표시한 후 부랴티아공화국은 NEAR와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부랴티아공화국 츠데노프 수반도 NEAR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고, 중국 선양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부랴티아공화국의 고위급이 반드시 참석해서 의장단체 수임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연해주, 이르쿠츠크주, 톰스크주 대표단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5.22(수)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러시아 회원단체 대표단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복잡한 국제 환경과 항공편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후, 이번 워크숍은 참가단체 수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임을 설명하고, 금년도 NEAR 활동 이해는 물론, 행사기간 중 다른 회원정부와의 적극 교류 등을 통해 동북아 지방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해주 콜모고로프 알렉세이 국제협력 부국장은 워크숍 초청에 감사를 표시한 후 NEAR의 플랫폼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속초, 블라디보스톡-울산 항로 재개, 블라디보스톡-서울 직항 노선 운항 재개, 주 블라디보스톡 경상북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부 개설 희망, 동방경제포럼 내 NEAR 회원정부 별도 행사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NEAR 회원단체 워크숍」에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이르쿠츠크주, 톰스크주 등 4개 러시아 회원단체가 참석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9.4(수) 연해주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코브제프 이고르 이르쿠츠크주 지사와 면담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르쿠츠크주가 제11대 NEAR 의장을 역임하였고, NEAR 사무국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NEAR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NEAR의 최근 동향, 러시아 회원정부의 활동, 금년 9월 랴오닝성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 및 10월 개최되는 후난성 혁신 플러스 분과위 행사를 소개하며 이르쿠츠크주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도 총회에 지사님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코브제프 지사는 현 동북아 정세하에서 NEA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선양에서 개최되는 고위급실무위원회는 물론 앞으로도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 특히 NEAR 플랫폼을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및 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반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9.3(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계기, 러시아 사하공화국 니콜라예프 아이센 수반을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우선 사하공화국은 NEAR 의장단체(2018~2021)를 역임하였고 체육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NEAR의 최근 동향, 러시아 회원정부의 활동, 금년 9월 랴오닝성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 및 10월 개최되는 후난성 혁신 플러스 분과위 행사를 소개하며 사하공화국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도 중국 선양 개최 예정인 NEAR 총회에 니콜라예프 수반 님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니콜라예프 사하공화국 수반은 현 동북아 정세하에서 NEA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선양에서 개최되는 고위급실무위원회는 물론 앞으로도 NEAR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사하공화국이 담당하고 있는 2025년 「NEAR 체육분과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사무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2024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발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러시아 중앙정부 주최 9.4(수) 블라디보스토크시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동방경제포럼」에서 「대유라시아 협력: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BRICS의 생산량 발전 경험사례」를 주제로 한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발표를 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에게 NEAR를 소개하면서, 「NEAR는 새로운 국제 정세 상황에서도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NEAR는 회원정부에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물론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가 모두 참석하고 있어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임 사무총장은 러시아 국제미디어그룹소속언론사인 RIA Novosti(오늘의 러시아)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NEAR 및 러시아 회원정부와 관계, 내년 EEF에서 NEAR 관련 세션을 개최 계획 및 NEAR의 중앙아 및 동남아 대상 순회원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연해주 총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9.3(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EFF)」 세션 토론자로 참석 계기, 체르비나 베라 연해주 총리를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우선 EFF 초청에 감사를 전한 후, NEAR의 최근 동향, 러시아 회원정부의 활동, 금년 9월 라오닝성 개최 고위급실무위원회 및 10월 개최되는 후난성 혁신 플러스 분과위 행사를 소개하며 연해주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도 총회에 지사님이나 총리님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체르비나 총리는 임 사무총장의 EFF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국제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 문화, 체육, 교육 등 인접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NEAR를 통해 지역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수반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9.4(수) 연해주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츠데노프 알렉세이 부랴티아 공화국 수반과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부랴티아공화국이 차기 의장단체 유치를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향후 라오닝성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NEAR 의장단체 수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장단체로서 NEAR 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츠데노프 수반은 부랴티아공화국이 NEAR와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 NEAR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국 선양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부랴티아공화국의 부총리급이 반드시 참석해서 의장단체 수임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내년 총회도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랴티아공화국이 의장단체가 되면 수임 2년 동안 NEAR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국영 언론사, NEAR 사무총장 특별 인터뷰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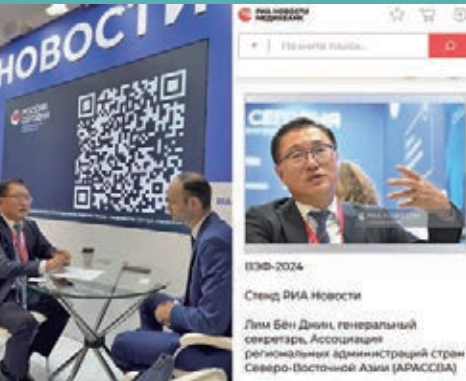
러시아 국영언론사 RIA Novosti(오늘의 러시아)는 9.4(수) 블라디보스토크시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2024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과의 특별 인터뷰 내용을 9.9(월) 자 3개의 테마 기사로 보도하였다.

RIA Novosti 지에 보도된 인터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랴티아공화국의 알렉세이 츠데노프 수반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부랴티아를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한국, 일본 등 6개국 8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NEAR의 16번째 의장국으로 제안, 차기 의장이 유력함

▲ 부랴티아가 차기 의장단체로 선출된다면, NEAR의 목표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과 지역 평화구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NEAR는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NEAR+2 정책, 즉 중앙아, 동남아 지역 지방정부 대상 준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 방향으로 플랫폼이 확장되면 냉전경향이 강화되더라도 NEAR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NEAR 사무총장,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부총리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9.24(화)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서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부총리를 만나 NEAR 의장단체 역할 문제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NEAR의 구성 및 의장단체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내년 라오닝성 NEAR 총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랴티아공화국이 차기의장단체를 맡는 만큼, 츠데노프 수반이 다른 러시아 회원정부들과 함께 직접 참석해 의장직을 수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부랴티아공화국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부총리는 임 사무총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별도 면담을 해준 데 감사를 표시한 후, NEAR 의장단체 수임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코체토바 부총리는 부랴티아공화국이 큰 규모의 국제행사 경험에 다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장단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 사하공화국 부총리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10.22(화) 중국 후난성 장가계에서 개최된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러시아 사하공화국 보리소프 김 부총리 대표단을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사하공화국이 제13대 NEAR 의장단체 역임(2018~2021), 체육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활동, 올해 개최된 NEAR 행사 다수 참가 등 NEAR 발전에 크게 기여함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사하공화국 보리소프 김 부총리는 현 동북아 정세하에서 NEAR가 유용한 플랫폼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NEAR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리소프 부총리는 내년 사하공화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 「체육 분과위원회」의 사무국 지원을 요청하였고, 임 사무총장은 분과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6. 회원정부 대사관 및 영사관 교류 협력

NEAR 사무총장,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8(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면담하고, NEAR의 현황 및 활동, NEAR의 준회원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NEAR와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색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광역지방정부가 NEAR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의 측면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임 사무총장의 NEAR 및 준회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NEAR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광역지방정부가 NEAR의 준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올해 대사관의 역점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NEAR와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NEAR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22(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신임 러시아 대사와 면담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지노비예프 대사의 한국 부임을 축하하고,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소개 및 금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러시아 회원정부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한·러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과 NEAR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회원정부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임 사무총장의 NEAR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NEAR를 보다 잘 알게 되었다고 하고,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에 있어 NEAR 활동과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회원정부, 특히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가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NEAR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 사무총장, 주한 미얀마 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23(화)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방문하여 탄 신 대사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 사무총장은 NEAR 현황 및 준회원제도를 소개하고, 금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임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아세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NEAR와 동남아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색 차원에서 미얀마의 양곤주나 네피도시가 NEAR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탄 신 대사는 임 사무총장의 NEAR 및 준회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NEAR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하고, 양곤주나 네피도시가 NEAR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 신 대사는 양곤주나 네피도시가 NEAR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NEAR의 회원정부와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NEAR 사무총장, 일본 국경일 리셉션 참석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2.20(화) 한국 부산광역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주부산일본 국총영사관(오스카 츠요시 총영사)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오스카 총영사에게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국내회원단체 신재현 국제관계대사, 박철민 국제관계대사, 채진원 국제관계대사를 만나 금년도 NEAR 주요행사(국제관계대사간담회, NEAR 회원단체 워크숍, 선양 개최 고위급 실무위원회 등)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오스카 총영사의 환영사,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현 신라대학교 총장)의 축사, 신재현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의 건배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정계, 관계, 산업계, 교육계 인사와 부산주재 외교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NEAR 사무총장, '2024 몽골 영화제 리셉션' 및 개막식 참석

임병진 사무총장은 3.8(금) 한국-몽골 수교 34주년을 맞이하여 주부산몽골영사관의 초청으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제1회 몽골영화제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며 영화제의 개막작인 '그 여인'을 관람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번 영화제를 주관한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영사에게 축하를 전했고, 행사에 참석한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 부총영사, 주부산 카자흐스탄총영사관 관계자 인사들과 환담하여 금년도 NEAR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관계자에게 준회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리셉션 행사에는 주부산몽골영사관, (사)한나래문화재단, 영화의전당 간 몽골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 마두금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개막식에서는 김광희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우너르자야 주부산 몽골영사 등이 축사를 하였다.



NEAR 사무총장, '러시아의 날 기념행사' 참석

임병진 사무총장은 6.11(화)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의 초청으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리셉션을 주관한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NEAR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두드니크 총영사는 러시아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임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석한 진일표 주부산 중국 총영사를 만나 NEAR의 최근 근황 및 NEAR 주요행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고, 아얀 카사비예프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도 현장에서 만나 카자흐스탄의 광역지방정부의 준회원 가입을 재차 요청하였고, 카사비예프 총영사는 준회원 가입을 위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먼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화답했다.



NEAR 사무총장, 주한 일본대사 예방

임병진 사무총장은 8.5(월)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즈시마 코이치(水嶋一) 일본 대사를 예방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미즈시마 대사의 한국 부임을 축하하고,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소개, 일본 회원단체 및 금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일본 회원단체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즈시마 대사는 NEAR는 동북아지방정부 간 다자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NEAR 플랫폼 내에서 일본지방정부의 성공사례 공유, 한일지방정부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하였다. 미즈시마 대사는 5월 17일 공식 부임하였으며, 2017년~2019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총괄 공사로 근무 후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이며, 한국은 국제문제 처리에 있어 일본의 파트너로 중요한 존재라고 하며, 한일 관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AR 사무총장,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9.3~6) 참석 계기, 9.4(수) 하병규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면담하고, 최근 동북아 정세와 한-러 지방정부 간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금번 '동방경제포럼' 참가 배경, 최근 NEAR의 활동 및 금년도 주요 사업, 연해 주 총리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총영사관 차원에서 러시아 NEAR 회원단체들이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하병규 총영사는 최근 연해주와 한국과의 관계, 연해주 내 한국기업 및 교민 상황 등을 설명하고, 한-러 관계가 좋지 않아 연해주와 한국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정부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NEAR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 사무총장,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참석

임병진 사무총장은 9.22(일), 서울 COEX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실행위원장 손경식 CJ Group회장)에 참석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를 후원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에게 축하를 전하고, 사무총장 일본 방문 결과 및 이번 9월 중국 라오닝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 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를 소개하고,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인선 외교부 제 2차관, 손경식 CJ Group 회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최상용 전 주일본대사, 유홍수 전 주일본대사, 이병기 전 주일본대사 등 국내 주요 인사들과 인사하고, NEAR를 소개하였다. 한편, 한일축제한마당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 최대의 민간교류 행사로써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였다.



NEAR 사무총장,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국경절 행사 참석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9.20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국경절 행사에 참석, 진일표 총영사에게 축하를 전했다. 또한 9.25 라오닝성 개최 고위급실무위원회와 10월 후난성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등 금년도 NEAR 행사계획을 설명하면서, 10.8 NEAR DAY 행사 초청과 함께 NEAR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우리비(于璩斐)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은 중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 시청과 한국과 중국 국가 연주, 축사와 건배사 만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리셉션에는 안성민 부산시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신정택 한중우호친선협회 회장, 김세환 국제신문 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태용 김해시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더불어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은 축하 편지를 보냈다. 영사관 관할 구역의 각계 우호 인사 및 각국의 주부산 영사기관, 중국계 투자기관장, 화교 및 유학생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NEAR 사무총장,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1.22(금)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방문하여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와 면담, NEAR와 카자흐스탄 광역지방정부와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NEAR 및 NEAR의 최근 활동, NEAR의 준회원 제도를 소개한 후, NEAR와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색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의 광역지방정부가 NEAR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카자흐스탄대사관의 측면 지원을 요청하였다.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임 사무총장의 NEAR 및 준회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NEAR가 동북아지역의 지방정부 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한-카자흐스탄 관계 발전과, 카자흐스탄 지방정부들이 한국의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카자흐스탄 광역지방정부가 NEAR의 준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NEAR 사무국,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주최 영화 상영회 참석

NEAR 사무국은 11.29.(금)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이 부산 KFA세안문화원에서 개최한 “도전”(Challenge)이라는 러시아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옥사나 두드니크 러시아 총영사, 이인혁 KFA세안문화원 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홍상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러시아 영화예술의 추세를 소개하였다.
이번 상영회에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슬란 아스카르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 척터 우너르자야 주부산 몽골 영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도전”은 클림 쉬펜코 감독이 연출한 러시아 드라마 영화로, 세계 최초로 전문 영화 제작진이 우주에서 촬영한 장면을 담은 장면 예술 영화이다.



NEAR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관 주최 「한-러 친선의 밤」 참석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12.3(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초청으로 러시아 대사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한-러 친선의 밤」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러시아 대사에 축하를 전하고, 늘 NEAR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임 사무총장은 「한-러 친선의 밤」 리셉션에 참석한 손경식 CJ 대표이사 회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석배 前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 사페트코 알렉세이 주한 무역 대표부 대표 등을 각각 만나 최근 NEAR 활동 및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회원정부와의 협력, 중앙아시아 등 준회원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을 설명하고 NEAR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변덕스러운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로 두 나라 간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강화

NEAR 사무총장,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8(월)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하여 구홍석 국제관계대사와 면담하고,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소개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 중에 서울특별시만 유일하게 NEAR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서울시는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있어 한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만큼 NEAR에도 가입하여 동북아지역의 지방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구홍석 대사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에 있어 NEAR의 역할을 평가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국제기구(CITYNET, WeGo)를 설명하였으며, 서울시의 NEAR 가입 문제는 현재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다.



NEAR 사무총장, 한국 외교부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1.8(월) 한국 외교부를 방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병원 차관보를 면담하고, NEAR 및 2023년도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은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향후 NEAR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김건 본부장과 정병원 차관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NEAR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고, 향후 NEAR의 활동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였다.



김희수 경상북도 도의원(前 부의장) 사무국 방문

김희수 경상북도 의원(前 부의장)은 1.18.(목) 사무국을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2023 NEAR 활동 및 2024 활동 계획을 설명한 후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NEAR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엇보다 오랫동안 NEAR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해준 김희수 도의원에 감사 표시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NEAR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NEAR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NEAR 사무총장, TCS 사무총장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1.23(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을 방문하여 이희섭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NEAR의 금년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 사무총장은 NEAR와 TCS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어 지금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면서, 금년 5월 개최 예정인 중국 라오닝성 주최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등 NEAR 주요 행사에 TCS 사무총장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TCS 이 사무총장은 NEAR의 동북아지방정부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할과 각종행사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영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NEAR 사무총장은 1.30일(화) 영남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접견하고 NEAR 회원단체 연수, 지역글로벌 교육협력, 해외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NEAR와 영남대학교는 주부산중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023 한-중 청년교류 UCC 공모전」을 주최하는 등 국제업무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EAR의 2024년 신규사업인 「NEAR 회원단체 연수프로그램」을 필두로 ▲지역 글로벌 교육협력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NEAR 회원단체 연수는 동북아지역 공무원들에게 동북아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의 주제를 국내 유일의 새마을국제개발 분야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NEAR 회원단체인 광역지방정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AR 사무총장, 영남대 개최 「제5기 한중 대학생 언어문화교류회」 영상 축하

임병진 사무총장은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와 중국유학생회가 주관하고 NEAR와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제5기 한중 대학생 언어문화교류회」 개막식에 축하(영상)를 하였다. 또한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도 영상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축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대학생 청년 간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한중 대학생 언어문화교류회」는 영남대가 한중 대학생 간 상호 이해와 언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고, 올해 제5기 행사에는 한중 대학생 40명(국가별 20명)이 참여하여 주 1회 교류의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평옌핑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원장 일행, NEAR 사무국 방문

임병진 사무총장은 5.19(일) NEAR 사무국을 방문한 평옌핑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무국을 방문하고, NEAR 국제포럼에 참가하는 등 NEAR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임 사무총장은 NEAR 최근 근황 및 중국 회원단체 활동 소개, 금년 NEAR 주요 행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향후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주축이 되어 NEAR 틀 내에서 분과위원회 형태로 가칭 NEAR 동북아평화발전포럼을 개최해 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평옌핑 원장은 NEAR가 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평가하고, 향후에도 사무국과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간 실질적 교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임 사무총장이 제안한 동북아 역내 평화 발전을 위한 분과위원회 형태의 'NEAR 동북아평화발전 포럼' 설립은 성정부와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 사무총장, 영남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글로벌 새마을 포럼」참석

임병진 사무총장은 5.28 '인류 공영의 열쇠, 한국발전경험 공유: 새마을 국제개발 공유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영남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글로벌 새마을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날 임 사무총장은 '2세션 [지구촌 공동번영의 미래: 스마트 새마을운동을 통한 Glocal Revolution]'의 연사자로 참석하여 "새마을 운동과 국제개발협력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 27년간 동북아의 다자간 지방외교를 위해 힘쓴 NEAR의 현황과 '4차산업 혁명 등 새로운 정세 변화에 따른 새마을운동 2.0 필요성 등과 함께 "올해 영남대와 MOU를 체결, 영남대 국제개발원에서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소개하고, "새마을운동이 NEAR 회원 지방정부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AR 사무총장, 한동대학교 총장과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협의

임병진 사무총장은 5.30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과 8월 개최 예정인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금년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번 행사를 국제화 수준이 높고 글로벌 대학을 추구하는 한동대와 공동개최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최도성 총장은 "청년리더스포럼은 동북아 6개국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동북아 청년들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한동대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개최에 동의하였다.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오는 8.5(월)부터 8.11(일)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유학 중인 NEAR 회원단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동북아 청년들의 역할과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사무총장,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국제포럼' 참석

임병진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6.18(화) 서울에서 "3국 협력 25주년 기념: 협력의 제도화와 교류 증진을 통해 더 밝은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한 '2024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을 주관한 이희섭 TCS 사무총장에게 축하를 전하고, 동 포럼에 참석한 김성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원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닝 후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왕판 중국외교학원 원장, 강볼드 바산자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 등 인사들과 환담하며 NEAR를 소개하고 NEA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TCS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은 3국협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3국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NEAR 사무총장, 포항의료원 초청 명사 특강 실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6.26(수) 포항의료원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과 중국문화의 이해' 제하 특강을 실시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중국은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로 일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발전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하고, 향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서로를 정확히 알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중국의 지리, 역사, 정치·외교, 민족 구성 등과 중국인 특유의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패턴 등 중국문화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포항의료원은 1939년 자혜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호스피스 완화병동 운영, 감염병 대응 역할을 수행할 격리음압병동 운영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대표단, 사무국 방문

일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INAF) 이강철 소장, 하바쿠미코 부이사장이 8.16(금) 사무국을 방문,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대표단의 사무국 방문을 환영하고, NEAR와 NEAR의 최근활동, 일본 회원정부 및 금년도 NEAR 주요행사를 소개하였으며, NEAR의 설립취지와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의 설립목적이 일치하므로 상호협력할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하고,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NEAR 내 싱크탱크 분과위원체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발전포럼'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지자체가 NEAR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NEAR 홍보 및 중매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NEAR 사무총장, 후난성 사회과학원, 장시성 대표단 면담

임병진 사무총장은 후난성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참석 계기, 후난성 장가계에서 10.22(화)~23(수) 후난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및 중국 장시성 우협 부회장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허우시바오(侯喜保) 후난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에게 후난성 사회과학원이 이번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의 '생태문명 및 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천 경험 공유' 특별회의를 맡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분과위 행사에 많은 중국 각 회원 정부의 사회과학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 NEAR 지방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NEAR 싱크탱크 간 협력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우시바오 부원장은 지난 12월 NEAR 국제포럼 참석을 통해 NEAR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NEAR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NEAR 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하태역 국제관계지원실장과 면담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12.2(월)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방문하여 하태역 국제관계지원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최근 NEAR 활동과 내년도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특히 내년에 실시할 'NEAR 회원정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중·일·몽·러 4개국 15명의 공무원들이 9박 10일 연수 중 2~3일 정도 17개 사·도 중 가능한 곳에서 OJT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하태역 실장은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프로그램인 K2H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NEAR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한 후, 내년에 실시할 'NEAR 회원정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한국의 17개 사·도에서 OJT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사·도 상호 간 이해·교류·협력 증진과 공동의 문제 및 현안을 대응하고,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이다.



IV. 회원정부 뉴스

국가(회원단체)	회원단체뉴스 게재 목록
한국	부산광역시
	박형준 부산시장, 한일친선 교토부의회 의원연맹 접견 박형준 부산시장, 일본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 접견 박형준 부산시장, 일본 나가사키현 대표단 접견
	대구광역시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개막 홍준표 대구시장,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면담
	인천광역시
	중국 랴오닝성 서기 만나 “교류확대와 경제협력 강화” 「2025년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인천 개최
	광주광역시
	자매도시 일본 센다이시서 한일문화카라반 개최
	대전광역시
	중국 시안시와 협력 강화
	울산광역시
	울산시 대표단, 자매도시 중국 우시시 방문 김두겸 울산시장, 중국 창춘시 방문 김두겸 울산시장, 중국 허난성, 칭다오시 방문 포항시와 함께 주한일본대사와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몽골불강아이막, 관광문화협력논의 세종시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 가입 한국 세종시 농업대표단 쑤시성 방문
	경기도
	경기도-중국 장쑤성과 자매결연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교류 협력 연수단 오키나와 파견 경기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랴오닝성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한국 강원특별자치도 -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야마현 한일우호의원연맹 방문단 접견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대표단 몽골 울란바타르시 방문
	충청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 일본 도쿄에서 나라현 지사 면담 「제7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전형식 정부부지사 방문단, 일본 시즈오카현과 교류·민간외교 강화 충남도·중국 쓰촨성 “의회·행정·스포츠 교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김관영 도지사, 일본 이시카와현 방문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해 중국 저장성 방문
	경상북도
	한·중 지사성장회의 2024 상반기 한국 개최 합의 지방정부 주도 저출산 해소 획기적 정책 추진 경북글로벌학당 개소 경북도·22개 시군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노력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협력회의」 개최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중국 몽골 방문 주부산일본총영사와 우호 협력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 경상북도의회, 히로시마현의장과 교류협력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 베트남 호치민 인민의회 방문 한국 경상북도 - 일본 돗토리현과 협력

국가(회원단체)	회원단체뉴스 게재 목록
한국	경상북도
	장영춘 중국 후난성 부성장, 경북도 방문 2025 APEC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주시’ 선정 이철우 도지사,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가르드훈장’ 수훈 경상북도 - 키르키스스탄 교류 확대 경상북도 - 키르키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2025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안동 개최 확정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몽골 국회의원 보좌관 3명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견학 경상남도의회 의장, 효고현 의회 방문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강화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막 오영훈 지사, 일본 오키나와현 방문
중국	안후이성
	「20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방정부 및 우호도시 협력 (황산·黃山) 포럼」 개최
	간쑤성
	「제30회 중국 간쑤성 란저우 투자무역 상담회」 개최 「2024 중국 간쑤성 경제무역 문화관광 농업 협력홍보회」 개최
	헤이룽장성
	중·러 헤이룽장성 국제 겨울 스포츠 대회 개막
	허난성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전달 중국 허난성, 캄보디아 프놈펜-베트남 호찌민시-중국 정저우시 신규 도로-철도 복합 운송 국제물류 노선 첫 개통
	후베이성
	후베이성 외판주임 (쎈)전국·통장연합회 총복지부 일행 접견
	후난성
	후난성인민대외우호협회 상무 부회장 교체 장영춘 중국 후난성 상무부성장, 중국 대사관 방문 장가계 마에스트로 서비스 MOU 체결식 개최
	지린성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대표단, 한국 방문
	랴오닝성
	랴오닝성, 경상북도와 교류 협력 확대 추진 랴오닝성 문화대표단 북한 방문 뤄리(罗丽)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주임, 최희덕 주선양 총영사와 면담 하오펑(郝鹏) 랴오닝성 당서기 4.22-4.25 방한 하계 다보스포럼 다롄 개최 진궈웨이(靳国卫) 랴오닝성 부성장 몽골 방문
	닝샤후이족자치구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참석 결과에 대한 보도
	쑤시성
	제8회 중국 시안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산둥성
	린우(林武) 산둥성 당서기 오영훈 한국 제주도지사 일행 접견 덩원평 부성장 일행, 경남도와 제주도 방문하여 교류협력 강화
일본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 지사, 한국 방문
	도야마현
	일본 도야마현 - 중국 랴오닝성 우호 교류 40주년 기념행사 일본 도야마현 닛타지사, 중국 랴오닝성 방문, 양 지방간 협력 각서 체결 한국언론, 지방 소멸 및 고령화 극복 모범사례로 도야마시 소개 닛타지사, 현 지사선거에서 재선
	교토부
	지진재해 발생 이시카와현 지원방안 협의

국가(회원단체)		회원단체뉴스 게재 목록
일본	효고현	사이토(齋藤) 지사, 현(県)지사선거에서 재선
	돗토리현	히라이 지사, 강원 특별자치도 방문
	오кина와현	타마키 데니 지사, 중국 푸젠성 저우주이(周祖翼) 당서기와 접견
몽골	볼강아이막	제15회 ‘Altargana’ 부랴트족 문화예술 축제 성료
	고비알타이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전달
	우부르항가이	
	웁스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제2회 국제불교포럼 「전통 불교와 현대의 도전」 개최
	사하공화국	사하공화국 관통하는 레나강에 대교 건설 시작 경상북도 연해주통상투자사무소 소장 사하공화국 방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연해주	연해주-북한, 북한과 여객철도 개통 추진 「2024 동방경제포럼」 개최
	하바롭스크변경주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전달 바롭스크와 중국 자무스 간 직항편 개설
	툼스크주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전달

V. 행사 초청장

국가(회원단체)		행사명
중국	안후이성	사무총장 앞, 「2024RCEP지방정부 및 우호도시협력(황산)포럼」 초청장
	간쑤성	사무총장 앞, 제30회 중국 란저우 무역투자상담회 초청장 「제7회 실크로드(둔황)국제 문화박람회」 초청장
	후난성	사무총장 앞, 「NEAR혁신+분과위원회 및 '녹색 발전'대회」 초청장
	산시성	사무총장 앞,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발전포럼」 초청장
일본	시마네현	사무총장 앞,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관련 초청 및 축하 의뢰
몽골	울란바타르	남바타르 울란바타르 시장 사무총장 앞 동북아시장 포럼 초청장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사무총장 앞, 「제2회 국제불교포럼 “전통 불교와 현대의 도전”」 초청장
	연해주	스테츠코부지사, 사무총장 앞 동방경제포럼 연사 초청장
한국	포항시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 초청장
주부산 일본 / 러시아 총영사관		국경일 리셉션 초청(참석)
한일축제한마당실행위원회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초청장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 글로벌 새마을 포럼 초청장

VI. 연하장 및 서한문

국가(회원단체)		수신목록	국가(회원단체)		수신목록
중국	간쑤성	• 바이인시인민정부, 사무국 감사서신	일본	이시카와현	• 하세지사, 사무총장의 노토반도 지진 위문서한에 대한 답신
	후난성	• 마오웨이밍(毛伟明) 후난성 성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 장잉춘 상무부성장, 사무총장 앞 감사서신		후쿠이현	•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 오카 데루아키 국제경제과 과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지린성	• 지린성 외사판공실, 사무국 앞 연하장 • 지린성 훈춘시 정은철(郑恩哲) 외판 주임, 사무총장 앞 연하장		시마네현	• 마루야마 다쓰야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랴오닝성	• 리러칭(李乐成) 성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 진궈웨이(靳国卫) 부성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 뤼리(罗丽) 외사판공실 주임, 사무총장 앞 연하장	한국	포항시	• 이강덕 포항시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몽골	바양울기아 이막(3)	• 장가르 신임 바양울기아이막 지사 축하 서신에 대한 답신
				불강아이막 (5)	• 아롱에르덴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네이멍구 자치구	• 왕리샤(王莉霞) 주석, 사무총장 앞 연하장 • 후펑(胡丰) 외사판공실 주임, 사무총장 앞 연하장		다르항오울 아이막(8)	• 벌드바타르 아즈자르갈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닝샤후이족 자치구	• 장위푸(张雨浦) 주석, 사무총장 앞 연하장 • 바이위전(白玉珍) 외판주임, 사무총장 앞 연하장		헝티아이막 (21)	• 아요르보니 신임 헝티아이막 지사 축하 서신에 대한 답신
	싼시성	• 자오강(赵刚) 성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러시아	알타이변경 주	• 스네사리 비탈리 부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산둥성	• 저우나이상(周乃翔) 성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크라스노야 르스크	• 포노마렌코 세르게이 제1부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일본	니가타현	• 오다 카요코 국제과 과장, 사무총장 앞 연하장		이르크츠크 주	• 코브제프 이고르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도야마현	• 닛타 하치로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 닛타 하치로 지사, 사무총장의 노토반도지진 위문 편지에 대한 답신 • 닛타 하치로 지사, 재선 축하서신에 대한 답신 • 도야마현 부지사 퇴임 인사 및 취임 인사 서한	유관기관	툼스크주	• 마주르 블라디미르 지사, 사무총장 앞 연하장
					•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주요코하마한국총영사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ICLEI 동아시아본부, 경상북도의회, 주부산중국총영사관, CLAIR 서울 사무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주한러시아 무역대표부, 중국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사무총장 앞 연하장

VII. 회원단체 지원활동

국가(회원단체)		지원활동
중국	후난성	• NEAR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 참가자 및 발표자 지원
	랴오닝성	• 제5회 중국(랴오닝성) 국제 투자 무역 상담회 개막식 참석 지원 • 랴오닝성 국제 우호 도시 무역대회 개막식 참석 및 축하 지원 • 단둥시 부시장 대표단의 포항시 방문 협조 요청에 대한 지원
	네이멍구 자치구	• NEAR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 참가자 및 발표자 지원 • 2024 세계 신에너지 신소재 대회 개막식 참석 및 축하 지원
	산둥성	• 2024 해양협력 발전포럼 영상 축하 지원
	산시성	• 산시 타이위안 저탄소 발전 포럼 영상 축하 지원
일본	시마네현	•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환인「교류의 날개 in 시마네」행사 참석 및 축하
	오кина와현	• 오키나와현-전라남도 면담 통역 지원(회원정부 워크숍 계기)
한국	충청북도	• 충청북도의회-몽골 교육부 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협약서 번역 지원 • ‘뭇난이 김치’ 몽골 수출을 위한 자료, 몽골어 번역 지원 • 근로 유학생 사업 관련 계획, 불강아이막 전달 위한 몽골어 번역 지원 • 몽골 불강아이막 서한문 번역 지원
	전라남도	• 몽골 지방정부와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몽골 방문 관련 공문 번역 지원 • 몽골 지역 방문 관련 정보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중국 랴오닝성 우호교류협정 체결 지원 • 외국인유학생 해외 유치설명회 관련 몽골어 번역 지원 • K-경북푸드 몽골 홍보·교류단 업무협약서 번역 지원 • 경상북도-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지원 •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참석 및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추진을 위해 주 부산총영사관과 소통 • 경상북도의회 루앙프라방주의회 방문일정, 서한, 교류의향서 번역 지원 • 경상북도의회 캄퐁툼주의회 방문일정, 서한, 교류의향서 번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63회 탐라문화제 몽골 불강아이막 예술단 인솔 및 통역 지원
	포항시	• 몽골 오르흥아이막 대표단 및 국회의원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면담 통역 지원
	부라티야 공화국	• 부라티야 제2회 국제 불교 포럼 초청 번역 및 이철우 경북 지사 전달 • 부라티야공화국 제1 부총리 - 경상북도부지사 및 울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면담 통역 지원(회원정부 워크숍 계기)
	연해주	• 연해주-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사업 계획 체결 지원(회원정부 워크숍 계기)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 키르기스스탄 추이주-닝샤후이족자치구 면담 진행 지원 및 통역(고위급 실무위원회 계기)

사무국 소개

The Secretariat



1. 사무국 설치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의 상설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사무국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설사무국 유치를 제안하여 총회에서 상설사무국 운영이 의결되었다. 이후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2. 사무국 조직 및 인력

사무총장 및 2부 체제(기획홍보부, 국제협력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회원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위원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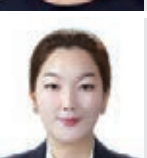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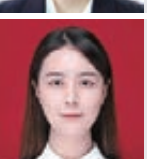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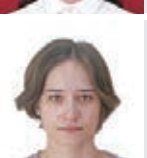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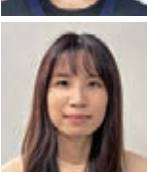
3. 예산

운영비는 연간 한화 13억 원(97만 달러 / 703만 위엔 / 1.42억 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70%)와 포항시(30%)가 부담하고 있다.

4. 업무

- 가. 회원 지방정부 간의 업무연락 조정
- 나. 총회, 고위급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운영지원 및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 다. NEAR 국제포럼, 회원정부 워크숍, 청년리더스포럼, 회원정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NEAR DAY 등 사무국 자체 사업 수행
- 라. 연합발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 마. 국제기구, 지역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바. 대외홍보 및 연합 홈페이지 운영
- 사.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 아. 예산편성 및 집행

5.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임 병 진 			
 기획홍보부장(경상북도) 윤 성 옥 		 국제협력부장 최 주 화 	
 기획총무팀장(경상북도) 김 민 지 		 행정전문위원 김 유 진 	
 행정전문위원 김 수 현 		 홍보전문위원 도 언 석 	
 중국전문위원 린 페 이 		 중국전문위원 방 헤 린 	
 일본전문위원 김 서 현 		 일본전문위원 이 한 나 	
 몽골전문위원 르함 히식자르갈 		 러시아전문위원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야 	
 영어전문위원 정 성 은 		 중국주재관(싼시성) 가오징잉 	
 몽골주재관(셀렝가이막) 후데르바타르 몽골징 		 러시아주재관(토스크주) 첸추고바 알리나 	
 NEAR사무국 시마네현 지부 이토하라 야스에 			

부록

Appendix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현장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헌장

제 정	1996. 9. 12.
일부개정	1998. 10. 21.
일부개정	2002. 9. 11.
일부개정	2004. 9. 8.
일부개정	2010. 10. 28.
일부개정	2014. 10. 22.
일부개정	2016. 9. 27.
일부개정	2018. 10. 29.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0. 25.
일부개정	2024. 3. 18.
일부개정	2024. 9. 26.

전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의 대표들은 호혜 ·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 · 경제 ·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개정 2024. 9. 26.>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기구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지방정부들이 호혜 ·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동북아지방정부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개정 2024. 9. 26.>
- 2. 지역간 경제 · 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교류 · 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4.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등의 범위 및 권리 · 의무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지방정부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

지방정부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16. 9. 27., 2024. 9. 26.>

제4조의2(준회원의 범위) “연합”의 준회원은 동북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면서,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정부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개정 2022. 9. 21., 2024. 9. 26.>

제4조의3(특별회원의 범위)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NEAR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방정부, 단체, 기관으로 고위급 실무위원회나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4. 3. 18.>

제5조(회원의 권리 · 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의2(준회원의 권리 · 의무) 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16. 9. 27.>

제5조의3(특별회원의 권리 · 의무) 특별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24. 3. 18.>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지방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9. 27., 2024. 9. 26.>

제7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 9. 11., 2010. 10. 28., 2024. 9. 26.>
- 2. 감사는 회원지방정부 소속 국가에서 각 국당 1인씩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임기는 제1호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24. 9. 26.>
- 3.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제1호 의장 및 제2호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개정 2016. 9. 27.>
- 2. 회비의 결정
- 3. 연합 헌장의 개정
- 4.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5.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6. 감사의 선출

- 7. 예산 ·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8.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승인 <신설 2016. 9. 27.>
- 9.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10.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지방정부는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24. 9. 26.>
- 2.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7.>
- 3. 제8조제6호 내지 제11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7.>
- 4.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1.>

제9조의2(고위급 실무위원회 의사결정의 위임)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의 경우 제8조 제1호, 제7호, 제8호 기능의 의사결정을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행할 수 있다.

제2절 고위급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 ①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지방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고위급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고위급 실무위원회 주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고위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2.> <개정 2018. 10. 29., 2024. 9. 26.>
- ② 고위급 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지방정부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 ③ 고위급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고위급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 ④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고위급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설된 분과위원회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0. 21.> <개정 2018. 10. 29.>

제11조(기능)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지방정부간의 의견조정 <개정 2024. 9. 26.>
-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1998. 10. 21.>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지방정부)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 9. 8., 2014. 10. 22., 2024. 9. 26.>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1.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지방정부의 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9. 8., 2024. 9. 26.>
- 2.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및 집행
-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지방정부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개정 2024. 9. 26.>
- 4. 총회 및 고위급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

- ① 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지방정부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 9. 26.>
- ②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연합의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며, 회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6. 9. 27.>
 - 2. 총회 및 고위급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목에 의거 부담한다.
 - 가. 경비는 회의 개최 지방정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가지방정부 대표단의 체재비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지방정부에게 일정 액수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 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최경비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한 회원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회원지방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2024. 9. 26.>
 -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 26.>
 -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지방정부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21.> <개정 2024. 9. 26.>

제17조(등록)

- ① 회원지방정부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21.> <개정 2024. 9. 26.>
- ②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 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신설 1998. 10. 21.>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 9. 27.>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 신에 동의한 지방정부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지방정부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 하고, 사본은 각 회원지방정부에 보관한다. <개정 2010. 10. 28., 2024. 9. 26.>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지방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개정 2024. 9. 26.>

부 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1998. 10. 21.
일부개정	2007. 9. 4.	
일부개정	2008. 9. 2.	
일부개정	2010. 10. 28.	
일부개정	2011. 7. 19.	
일부개정	2013. 9. 11.	
일부개정	2017. 9. 26.	
일부개정	2018. 10. 29.	
일부개정	2023. 10. 25.	
일부개정	2025. 1. 14.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헌장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개정 2017. 9. 26, 2025. 1. 14.>

제1조(설치)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또는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 「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9. 26, 2025. 1. 14.>

제2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명칭변경 2013. 9. 11.>
2. 환경분과위원회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통합 2008. 9. 2.>
4. 방재분과위원회
5. 삭제 <2017. 9. 26.>
6. 삭제 <2017. 9. 26.>
7.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8.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9. 광물자원개발분과위원회 <신설 2010. 10. 28. 개정 2017. 9. 26.>
10.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신설 2010. 10. 28.>
11. 삭제 <2017. 9. 26.>
12.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 19.>
13. 농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 19.>
14. 체육분과위원회 <신설 2013. 9. 11.>
15. 물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16.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17.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18.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19.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20. 전통의학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21. 에너지협력분과위원회 <신설 2023. 10. 25>
22. 디지털경제분과위원회 <신설2023. 10. 25>

제3조(기능)

- ① 각 분과위원회는 개별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개정 2017. 9. 26, 2025. 1. 14.>
- ② 각 분과위원회는 개별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9. 26.>

제4조(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지방정부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14.>

제5조(운영)

- ①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이하「코디네이트 지방정부」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6, 2025. 1. 14.>
- ② 코디네이트 지방정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코디네이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9, 2017. 9. 26, 2025. 1. 14.>
-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연락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 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지방정부는 임기 내에 1회 이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또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9, 2017. 9. 26, 2025. 1. 14.>
- ⑤ 코디네이트 지방정부는 분과위원회 운영 시 많은 회원 지방정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9, 개정 2017. 9. 26, 2025. 1. 14.>
- ⑥ 필요에 따라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9.>
- ⑦ 코디네이트 지방정부가 분과위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다른 지방정부가 코디네이트 지방정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코디네이트 지방정부 교체를 고위급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2025. 1. 14.>
- ⑧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코디네이트 지방정부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2025. 1. 14.>

제6조(참가)

- ① 모든 회원지방정부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1. 7. 19, 2025. 1. 14.>
-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하여, 코디네이트 지방정부는 회원지방정부 지역의 전문가, 기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6, 2025. 1. 14.>

제7조(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 14.>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지방정부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분과위원회 참가 지방정부 이외의 지방정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7. 19, 개정 2017. 9. 26, 2025. 1. 14.>

제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고위급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회원 지방정부단체

러시아

- ① 부랴티아공화국
- ② 사하(아쿠티아)공화국
- ③ 투바공화국
- ④ 알타이변경주
- ⑤ 자바이칼변경주
- 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⑦ 연해변경주
- ⑧ 하바롭스크변경주
- ⑨ 아무르주
- ⑩ 이르쿠츠크주
- ⑪ 캅차카변경주
- ⑫ 마가단주
- ⑬ 사할린주
- ⑭ 톰스크주
- ⑮ 케메로보주
- ⑯ 하카시아공화국
- ⑰ 알타이공화국

몽골

- ① 울란바토르시
- ② 아르hangai아이막
- ③ 바양울기아이막
- ④ 바양홍고리아이막
- ⑤ 불강아이막
- ⑥ 고비알타이아이막
- ⑦ 고비숨베르아이막
- ⑧ 다르항오올아이막
- ⑨ 도르노드아이막
- ⑩ 도르노고비아이막
- ⑪ 돈드고비아이막
- ⑫ 자브항아이막
- ⑬ 오르khon아이막
- ⑭ 우브르항가이아이막
- ⑮ 옴노고비아이막
- ⑯ 수흐바타르아이막
- ⑰ 셸렝가이막
- ⑱ 투브아이막
- ⑲ 옴스아이막
- ⑳ 홈드아이막
- ㉑ 헝타이아이막
- ㉒ 홈스쿨아이막

특별회원

- ⑤ 포항시

파트너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유럽 자치단체의 공동번영 및 보완성 추구를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27개국 134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프랑스 알사스주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www.aer.eu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 세계 86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었고,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ww.iclei.org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기구(R20)

세계지도자들이 UN과 협력하여 설립한 기구로서 세계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발전 프로젝트·정책·수범사례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gions20.org

북한

- ① 함경북도
- ② 나선특별시

대한민국

- ① 부산광역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광주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 ⑦ 세종특별자치시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 ⑫ 전북특별자치도
- ⑬ 전라남도
- ⑭ 경상북도
- ⑮ 경상남도
- ⑯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 ① 아오모리현
- ② 아키타현
- ③ 야마가타현
- ④ 니이가타현
- ⑤ 도야마현
- ⑥ 이시카와현
- ⑦ 후쿠이현
- ⑧ 교토부
- ⑨ 효고현
- ⑩ 돗토리현
- ⑪ 시마네현

중국

- ① 안후이성
- ② 헤이룽장성
- ③ 허난성
- ④ 후베이성
- ⑤ 후난성
- ⑥ 지린성
- ⑦ 네이멍구자치구
- ⑧ 닝샤회족자치구
- ⑨ 산둥성
- ⑩ 산시성 (山西)
- ⑪ 쑤이성 (陝西)
- ⑫ 랴오닝성
- ⑬ 간쑤성
- ⑭ 칭하이성

준회원

- ① 베트남(호찌민)
- ② 키르기스스탄(추이주)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37668)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T. CN:+82-54-223-2328 JP:+82-54-223-2317 KR:+82-54-223-2324 MN:+82-54-223-2384 RU:+82-54-223-2385
F. +82-54-223-2309 E-mail k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